

雲門

불기 2566년

가을호

통권 제161호

雲門寺 僧伽大學





새로 단청한 만세루

구름문을 펼치다

- ❖ 가을 하늘의 흰구름과 이목소 물이 유유히 흐르듯 우리의 마음도 유유하길… / 보현 대교과
- ❖ 운문사에서 가을을 네 번이나 보냈지만 같은 가을은 한 번도 없었어요~ 마치 화현하신 관세음보살님처럼요 / 성안 대교과
- ❖ 운문사의 가을하늘, 가을바람 참 좋습니다. / 지견 대교과
- ❖ 파란하늘 폭신푹신 흰구름 파란물 들겠네. 자비로운 부처님 말씀 선한 향기로 물드네. / 천진 사교과
- ❖ 서늘한 가을 바람 새벽 구름 몰고가니, 맑디 맑은 하늘에 청정한 별들 그대로 드러나듯, 번뇌 몰고간 마음자리 그대로 드러나 네. / 경문 사교과
- ❖ 초를 켜고 향 사르는 지금, 이 순간부터 저희는 오백 아라한의 화신입니다. / 영원 사교과
- ❖ 운문사에 보석이 있다. 그건 바로 나… / 보명 사집과
- ❖ 푸르른 가을 창공을 바라보며 이 가을 비우고 또 비워보자! / 선혜 사집과
- ❖ 모든 것이 미래의 부처님입니다. 순간순간 살아 있습니다. / 혜진 사집과
- ❖ 가을 빛에 물들다. / 진성 사미니과
- ❖ 딱 좋다. 딱 빠진다. 은행향기와 같은 치문의 가을. / 공림 사미니과

雲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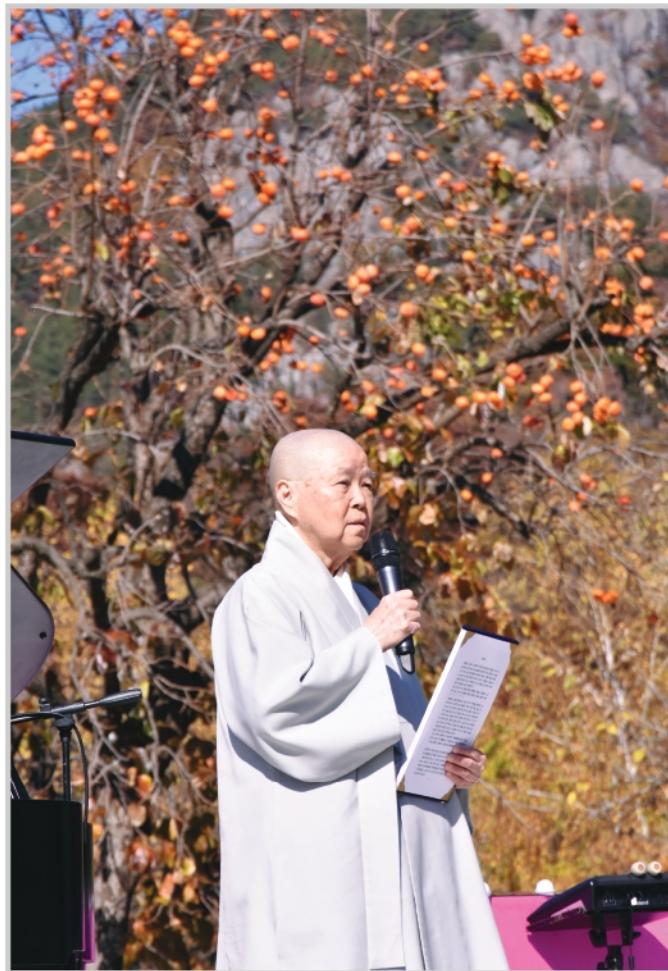
목차

- | | |
|---|--|
| <p>02 호거산 운문사</p> <p>04 죽림헌</p> <p>06 수행, 그 속에 깃든 행복</p> <p>08 교수논단</p> <p>13 想</p> <p>14 학인논단</p> <p>18 외부기고</p> <p>23 풍경소리</p> <p>24 선배팀방</p> <p>28 수행의 두레박 하나</p> <p>30 수행의 두레박 둘</p> <p>32 수행의 두레박 셋</p> <p>34 운문, 운문인</p> <p>36 자유기고 1</p> <p>38 자유기고 2</p> <p>40 차례법문</p> <p>42 화랑동산</p> <p>46 이 한 권의 책</p> <p>48 운문논평</p> <p>50 운문소식</p> <p>51 등불</p> | <p>구름문을 펼치다</p> <p>시대가 변해도 진리眞理는 변함없다 명성</p> <p>원효 회고상回顧相 - 꽃잎 즈려 밟고 설총을 노래하다 영덕</p> <p>대한불교조계종 이부승수계제도二部僧受戒制度의 정착과 의의 ❷ 일진</p> <p>자작자수自作自受 도영</p> <p>불교와 자이나교의 불살생不殺生 이론 고찰 법일</p> <p>운수단상雲水斷想 - 전한 바 없이 전하다 나무불</p> <p>還至本處를 願하며… 보선</p> <p>다음 세대의 납자를 기다리며 - 위봉사 주지 송옥 스님 대겸</p> <p>수행의 두레박 서우</p> <p>가을이 물들어가듯… 혜명</p> <p>소소한 일상 지명</p> <p>기을하늘에 비친 운문의 기상氣像 편집부</p> <p>당신은 변화하고 있습니까?! 도솔</p> <p>생활 속에서 자구를 지키는 방법 도선</p> <p>참 좋습니다 문광</p> <p>함께 익어가는 맛 - 운문사 제51회 총동문회를 보내면서 진하</p> <p>『용성 평전』을 읽고 정현</p> <p>순례자 위의에 대한 단상斷想 편집부</p> <p>옥등잔玉燈盞</p> |
|---|--|



시대가 변해도 진리眞理는 변함없다

명성 / 운문사 회주



여름철의 「물과 같은 운문화합」에서 ‘육화합과 벗’에 대한 소중함을 말하였습니다. 이번 가을호에서는 ‘和合과 일곱 가지 쇠퇴하지 않는 법’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중국 남북조 시대의 역사 기록인 『남사南史』에 ‘백만택 천만매린百萬買宅 千萬買隣’이라는 고사古事가 있습니다. 송계아宋季雅라는 남조南朝의 고위관리가 은퇴 후 노후老後에 살집을 구하여 이사를 하는데, 때에 시세가 백만금인 집을 천백만금을 주고 삽니다. 새로 산 그 집의 이웃에는 고아高雅한 선비로 이름난 여승진呂僧珍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가 이 일에 대하여 의아하게 여겨 연유를 묻습니다. 이에 송계아의 대답이 걸작이니 ‘백만금은 집값이요, 천만금은 이웃의 隣’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인품이 훌륭한 이웃인 당신과 더불어 만년晚年에 화합하며 여생을 보내고자 한다는 의미를 전한 것이지요. 참으로 사람과 더불어 사는 소중함을 아는 처사라고 하겠습니다. ‘화향백리 人香萬里’라고 하였습니다. ‘꽃의 향기는 백리를 가지만 사람의 향기는 만리萬里를 간다고 하였지요. 천금을 써서라도 함께하고 싶은 좋은 이웃이나 친구, 도반이 있다는 것은 인생에서 행복한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왕들의 귀의를 받으셨고 그들을 교화하며 이상적인 통치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공화정치共和政治였습니다. 물론 부처님의 고향인 카필라성도 사카공화국이었고, 현재 우리나라로 헌법 제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되어 있지요. 이러한 공화 정치의 특징은 국가가 정한 원칙과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인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던 마가다국의 아사세왕이 공화국 체제인 뱃지족을 침공하려할 때 부처님께서는 마가다국의 사신을 앞에 두고, 아난에게 뱃지족에 관하여 일곱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들은 ‘회의와 협의’를 존중하는가? ‘협동과 연대’를 존중하는가? ‘법률과 전통’을 존중하는가? ‘연장자’를 존중하는가? ‘여성과 아이’를 존중하는가? ‘종교성과 정신성’을 존중하는가? ‘문화인과 철학인’들을 존경하며 개방된 교류를 존중하는가? 이와 같은 질문에 모두 그러하다는 대답을 근거로 “이 일곱 가지를 지키고 있다면, 뱃지족은 번영이 있을 뿐 쇠망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부처님께서는 『대반열반경』에서 승가공동체를 위한 칠불퇴법을 말씀하시는데 첫째, 출가자들이 자주 만나 함께 법을 논하며 둘째, 승가가 해야 할 일을 위하여 화합하고 연대하며 셋째, 이미 정해진 일을 마음대로 파하지 않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을 마음대로 정하지 않고 올바르게 계율을 지키고 실천하며 넷째, 경험에 풍부한 법랍 높은 장로들을 공경하고 대접하며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올바른 결정에 따라 화합하며 다섯째, 출가자들이 윤회를 불러일으키는 갈애에 지배되지 않고 청정하는 것 여섯째, 출가자들이 숲 속의 주처에서 머물기를 바라며 일곱째, 출가자들이 아직 오지 않은 선한 도반들이 오기를 바라고 또 이미 온 선한 도반들은 쾌적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는 한, 승가는 쇠퇴하는 일 없이 영원히 번영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불교 승가는 모든 대중들이 필요할 때마다 한 자리에 모여 회의를 하고, 부처님께서 남기신 법과 율을 기준으로 출가자 스스로의 청정성을 확립해가며 도반에 대한 따뜻한 배려의 마음을 잊지 않고 수행해 가는 것을 이상으로 하는 공동체입니다.

시대가 변하여도 진리는 변함없습니다. ☺

원효 회고상回顧相

-꽃잎 즈려밟고 설총을 노래하다

영덕 / 운문사승가대학 학감

1. 誕生

찬 달빛 속 긴 그림자 꽃잎 무수히 날릴 제
계림 앞 문천교에서 千生 인연 만났지
고운 아미 깜박이지 않고 바라보던 맑은 눈빛 속으로
하늘 받칠 큰 기둥, 나라에 어진이 설총이 돌아 왔네
바라보리라 바라보리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바라보리라 바라보리라 어이 잊으리 설총이여

2. 立志

동근 달 떠올라서 서산에 질 때까지
手不釋卷, 설총과 함께 하는 밝은 별 삼태육성
잠 없는 밤 속에서 經史에 博通하고
이두방언 사서육경 백성 위해 풀어썼지
바라보리라 바라보리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바라보리라 바라보리라 어이 잊으리 설총이여

* 手不釋卷 -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공부하는 열정.
三台六星 - 삼태는 큰곰자리에 속하는 상태성 중태성
하태성 별. 육성은 남쪽을 대표하는 南斗六星으로 北斗七星과 같이 인간의 길흉화복과 수명 장단을 관掌.
이두방언-한자의 음과 뜻을 빌어서 우리나라 말을 표기하던 문자

四書 - 論語 · 孟子 · 中庸 · 大學
六經 - 詩經 · 書經 · 易經 · 春秋 · 禮記 · 樂記.

3. 不惑

춘하추동 봇을 잡아 新羅 儒學 길을 여시고
白頭翁같은 정직함으로 군자의 덕 일깨우셨지
그쳐야 할 때 그칠 줄 아는 지혜, 국학을 이끌던 분
가슴에 새겨 잊지 않으리 新羅三文章 新羅十賢 弘儒侯
바라보리라 바라보리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바라보리라 바라보리라 어이 잊으리 설총이여

* 백두옹 - 할미꽃. 설총의 〈花王戒〉 속 충성과 信을
간언하는 신하에 견줄.
新羅三文章 - 薛聰 · 強首 · 崔致遠
新羅十賢 - 설총 · 최치원 · 최승우 · 최언위 · 김대
문 · 박인범 · 원걸 · 왕거인 · 김운경 · 김수훈 추정.
弘儒侯 - 1022년 고려 현종 13년 1월에 추증된 설총
의 시호, 문묘에 배향. 경주 西嶽書院, 진주 南岳書院,
경산 道東書院 등에 配享. 경산의 三聖賢 중 한 분.

4. 知天命 – 元曉

천촌만락 뺏속을 파고 드는 시린 바람 속
무애무 한 마당으로 허기진 배 웃개 하네
근본에 들게 하던 나 무아 미 타 불 여섯 글자!
가난한 가슴마다 무진등불 밝혀 주었지

바라보리라 바라보리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바라보리라 바라보리라 어이 잊으리 설총이여

5. 耳順 – 衆生迴向

곁 주지 않던 기다림 속, 긴 이별일랑
중생 위한 회향인 줄 누군들 모르리오
나를 보지 말고 비바람 속 백성을 보라시던
우거진 바람 속에서도 돌아보지 않던 아버지

바라보리라 바라보리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바라보리라 바라보리라 어이 잊으리 설총이여

* 중생회향 – 대승보살들이 자기가 닦은 바의 일체 공덕을 중생에게 돌려주는 것.

6. 古稀 – 元曉塑像

천동같은 뇌성벽력 분황대종 울리고
만근같은 슬픔으로 마지막 절 올리올 제
돌아보시네 고개들어 설총을 돌아보시네 그렇게 여전히
돌아보고 계신다던 원효 소상은 지금 어디로 가셨는가.

바라보리라 바라보리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바라보리라 바라보리라 어이 잊으리 설총이여

* 『삼국유사三國遺事』「元曉不羈條」에서 一然 은 '소상이 갑자기 고개를 돌려 슬퍼하는 설총을 바라보았으며 지금도 여전히 돌아본 채로 있다.'고 하였다.

《詩作노트》

아침 햇살

고인도 날 못 보고

비춰오는 길목에서

나도 고인 못 뵈지만

마음을

가던 길 앞에 있으니

가다듬는다.

묵묵히

걸을 뿐이다.

壬寅年 霜降에 읊다. ☺

대한불교조계종 이부승수 계제도二部僧受戒制度의 정착과 의의 ②

일진 / 운문사승가대학 율주

목 차

- I. 머리말
- II. 이부승수계의 기원
 - 1. 비구니 수계의 기원
 - 2. 이부승수계의 전래
- III. 대한불교조계종의 이부승수계제도
 - 1. 이부승수계의 복원
 - 2. 조계종의 비구니수계 과정
- IV. 한국비구니의 위상과 법계명성의 역할
- V. 맺음말



III. 대한불교조계종의 이부승수계제도

1. 이부승수계의 복원

암울한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한국 불교는 정화와 법난이라는 내외적인 요인으로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 그중의 하나가 1981년 '단일계 단'의 확립이었고 이와 더불어 복원된 것이 '이부승수계제도'이다.

조선시대부터 1982년 이부승수계제도가 복원될 때까지 한국의 비구니는 비구 승가에 의해 비구니 구족계를 받았다.²³⁾ 비구니의 일중수계가 울장에 어긋난 것조차 모르던 시절에 이부승에 의한 양 중수계의식이 부활되는 데는 자운율사의 역할이 가장 컸다고 여겨진다.

1982년 초 자운율사는 비구니 이부승수계제도를 복원시키기 위하여 조계종 중앙종회에 건의하였고, 1982년 6월 조계종단에서 이를 승인하는 종법을 제정하였다. 이렇게 승인된 종법은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계단법 제3장 계단, 제10조 2항과 3항의 비구니계단에 관한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② 비구니 계단은 여법비구니, 삼사칠중(또는 삼사이중)을 선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식차마나니에게 예비 수계케 하고 다음에 당일로 이부대승중 본소 계단에서 본수계를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③ 만 18세 이상의 사미니는 식차마나니 6법계를 받아야 하며 6계를 받은 식차마나니라야 비구니 구족계에 응할 수 있다.

1981년 2월 제1회 단일계단 수계식에 의하여 사미, 사미니가 탄생하였고, 같은 해 10월 제2회 단일계단에서 제1회 비구 구족계 수계식이 열렸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82년, 제정된 종법에 의하여 제3회 단일계단에서 드디어 첫 식차마나니와 비구니 구족계 수계가 이루어졌다. 한국불교사 기록상 최초로 비구와 똑같이 삼사칠중의 비구니가 비구니수계의

식에 참여하여 이부승수계제도가 부활된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인 이부승수계제도의 부활을 성사시키기까지 당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노고가 있었을지 다 말할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비구니 윤사 양성이었다. 당장에 별소계단에서 수계할 비구니 윤사를 교육하고 선정하는 일이 급선무였다. 이때 자운 윤사의 큰 원력과 도움으로 1982년 진관사에서 비구니계율 특강을 실시하여 본법니계단계 사本法尼戒壇戒師를 선발하였다. 당시 운문사 중강을 맡고 있던 필자도 이 계율 특강에 참석하였으며, 계율연수교육부터 수계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글로 정리하여 운문화보에 실은 바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운 윤사慈雲律師 스님과 일타一陀 스님께서 이부승계단二部僧戒壇을 강조하시던 차 계율에 특별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석남사 비구니 선원장이신 인홍 스님께서 선뜻 단안을 내리시어 우선 현재 강원에서 강설하는 강사스님들로 하여금 계율을 연구하고 설하게 하는 것이 지름길이 될 것이라 감안하여 1982년 7월 9일 석남사에서 전국의 비구니 강사회의를 소집하였다. 동학사, 봉녕사, 화운사, 운문사 등 각 강원에서 모인 강주스님들은 그 취지에 뜻을 모아 여름방학인 8월 10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을 비구니 계율 특별강의기간으로 정하고 수강 대상자는 강사스님들이 추천하는 법랍 10년 이상 세납 30세 이상의 비구니로서 앞으로 한국 비구니계율에 이바지할 사명감 있는 스님으로 하되 강원마다 5명씩 추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후 1개월 후인 8월 10일 서울 진관사(주지 진관 스님)에서 중명으로 윤사 자운 큰스님을 모시고 윤주 지관 스님이 비구니 348 계를 직접 강설하셨다. 청법대중은 석남사 원장 인홍 스님을 비롯하여 비구니 원로스님과 각 강원의

강사스님 그리고 계율에 뜻이 있는 선원에서 온 젊은 스님 등 5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소 수행생활 보다 더욱 여법하게 계행을 지키며 수강하였다.

강의하는 10일간 윤사스님과 비구니 원로스님, 직접 설계說戒하실 운문사·봉녕사 강주스님께서는 강의시간을 제외하고는 매일 비구니 계단설치의 방법, 삼사칠중스님의 법복, 수계의식 등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나만큼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충분히 논의한 끝에 최대한 여법한 비구니계단을 설계하였다.

진관사 주지스님의 각별한 배려로 50여 명의 대중은 별 불편 없이 환희에 찬 분위기 속에서 여법하게 수행하며 이와 같은 계율특강불사가 이번에만 그칠 것이 아니기를 바랐으며, 단순히 윤사를 위한 강의에 그치지 말고 기성 비구니 스님들을 위해서도 1년에 한 번씩 이러한 법회가 열려야 한다고 중론을 모았다.(중략)

계속해서 몇 년간을 비구니를 위한 특강을 가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다음해에는 운문사에서 역시 윤사 자운 큰스님을 비롯하여 원로 비구니스님네가 참석하신 가운데 일타 스님을 모시고 특강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마지막 회향 날에는 윤주 지관 스님께서 결론부분으로 인도의 비구니스님들이 중국에 비구니계단을 전수하기 위하여 겪었던 고충과 의의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다. 또한 앞으로 비구니 스님들은 한국 비구니 스님 스스로에 의하여 개설開說되는 비구니 계단에 깊은 관심과 사명을 가져야 할 것을 당부하시었다.

본 법회가 끝나는 날 자운 윤사스님께서는 제2회 단일구족계단 전계사로부터 전달되는 위촉장을 직접 전하셨는데 비구니 전계사傳戒師에 정행 스님, 갈마사羯磨師 묘엄 스님, 교수사教授師 명성 스님, 칠중사七證師에 윤호 스님, 인홍 스님, 혜연 스님, 법일 스님, 대영 스님, 광호 스님, 수인 스님 등 삼사칠

증사와 인례사引禮師에 적조, 진성 스님, 습의사習儀師에 일운, 일진 스님을 위촉하시었다.

사상 최초로 시행되는 이부승계단이니만큼 신중하게 그리고 완벽한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 10월 15일부터 20일까지 드디어 수계산림법회가 제14교구 본사 범어사에서 열리게 되어 니전계사尼傳戒師 정행 스님으로부터 비구니가 될 식차마나니에게 비구니 스님의 육성으로 직접 설계하는 모습과 그 근엄한 도량은 문자 그대로 청정여법한 비니법석이었다. 비록 예비수계식이라고는 하나 비구니스님만이 전하고 받아 느낄 수 있는 감회는 이루 표현할 길이 없었다. 더욱 절실하고 더욱 엄숙하게 1시간 30분 동안의 수계의식이 행하여진 후 바로 본소계단本所戒壇에 옮겨져서 비구 비구니 삼사칠중사 스님네 20명이 모인 계단에서 다시 정수본법니계正授本法尼戒를 받음으로써 모든 의식은 끝났다.²⁴⁾

진관사에서 있었던 비구니를 위한 계율 특강부터 1982년 범어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이부승 수계의식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느꼈던 감회가 새삼스럽다.

율장을 바탕으로 한다면, 식차마나니계를 수지하고 2년간의 학계 기간을 지나고 나서 비구니 구족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당시에는 식차마나니계를 받고 바로 이어서 비구니 별소계단과 비구 본소계단을 거쳐 이부승에 의한 비구니계를 받았다.²⁵⁾

1982년 비구니 율사 양성을 위한 계율특강이 자운 율사스님의 증명과 지관 스님의 강의로 비구니 50여 명을 대상으로 8월 10부터 20일까지 열흘간 진관사에서 열렸다. 당시 발행된 기념책자에는 참여했던 스님들의 개인 사진과 법명을 낱낱이 수록하였고, ‘이부승계단개설二部僧 戒壇開說에 즈음한 강습회講習會의 의의意義’라는 발간사가 실려 있다.²⁶⁾

매년 이런 강습회를 열자는 당시의 중론에 따라 계율특강은 당분간 지속되었다. 다음해인 1983

년, 운문사에서 제2차 계율 특강을 열어 『사분비구니계본』과 『비구니계율 연구』를 교재로 일타 스님이 강의하였으며, 1984년 제3차 특강은 봉녕사에서 자운율사의 증명 아래 지관 스님이 강의하였다. 그리고 1985년 석남사에서 실시한 제4차 특강에서는 자운 스님을 증명으로 모시고 묘엄 스님이 포살과 강의를 진행하였다.

1982년 처음으로 선발된 별소계단의 삼사칠중사 중 삼사는 전계사에 정행 스님, 갈마사 묘엄 스님, 교수사 명성 스님, 칠중사에 윤호 스님, 인홍 스님, 혜연 스님, 법일 스님, 대영 스님, 광호 스님, 수인 스님이었다.

이후 역대 비구니 전계사를 한 니화상은 정행·인홍·묘엄·광우·혜운·태경·명성·지원·정훈 스님 등이고 비구니 이사칠중으로는 명성·혜연·광호·대영·법일·윤호·명주·태구·법형·혜명·지명·법선·지현·벽안·보인·정화·창일·혜안·현행·경순·지형·정훈·성타·수연·경희·경인·지원·법인·정륜·보현·경심 스님 등이다.²⁷⁾

이러한 ‘비구니전계화상’의 탄생이라는 한국 불교 비구니의 역사가 새로이 쓰여지기까지 자운 큰스님의 역할이 지대하였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1992년 자운 큰스님이 입적하고 나서 새 세대 비구율사가 수계산림을 주도하면서, 1999년 비구율사들은 대애도 비구니의 수계에 대한 설화를 근거로 별소계단의 비구니 구족계 산림에서 비구율사가 교수아사리로서 348계를 비구니 수계자들에게 강의하겠다고 공표하였다.

비구니 원로들의 강력한 반발과 항의에도 불구하고 1999년부터 2005년까지 6년 동안 별소계단의 비구니 구족계 수계산림에서 비구율사가 교수아사리직을 맡아 수행하였고, 그 후 2006년 지관 스님 총무원장 임기 시절에 다시 별소계단의 아사리직이 비구니율사에게 환원되었다.²⁸⁾ 이것은 비구승단의 권위 의식과 더불어 가장 큰 문제로 비구니율사의

인력 부족에 원인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비구니율사 양성에 대한 자각이 일어났고 1999년 묘엄 스님은 봉녕사승가대학에 최초로 비구니 율원인 '금강율원'을 개원하였다. 그리고 그 후 2007년에는 청암사에 윤학대학원이, 2008년에 세 번째로 운문사에 '보현율원'이 개원되었다. 비구니를 위한 윤장 교육과 비구니 율사의 전문 교육을 전담하는 비구니 율원이 개원됨으로써 비구니 율사 양성의 교두보가 확보된 셈이다.

2. 조계종의 비구니수계과정

현재 대한불교조계종은 『사분율』에 근거한 이부승수계로써 비구니 구족계 수계의식을 실시하고 있다. 사분율에 의거한 매우 강한 구족계 전통으로써 계체출생의 으뜸이라 할 수 있는 출가대중을 중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²⁹⁾

이부승수계제도가 정착된 현재 조계종에서 여성출가자의 출가수계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조계종으로 출가를 하려는 여성출가자는 우선 출가사찰에서 6개월 이상 행자생활을 하고 본사별 권역 교육을 받는다. 그리고 행자기간이 채워지면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행자교육을 10일간³⁰⁾받은 후 5급 승가고시에 합격하면 사미니계를 받아 예비승이 된다. 사미니계를 받아 예비승이 되면 2년 이내에 기본교육기관에 입학하여 4년간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사미니는 기본교육기관 이수 3년차에 식차마나니계를 받는다. 기본 교육기관을 졸업하고 조계종의 종헌종법상의 수계자격 요건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는 4급 승가고시를 치를 자격을 부여받고 고시에 합격하면 구족계인 비구니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부승수계로 이루어지는 비구니 구족계의식에서 수계의식은 일타 스님이 편역한 『수계의법』을 따르고 있는데 이 책은 「식차마나니계정법式又摩那尼戒正範」과 「이부승수계의식二部僧受戒儀式」 상하上下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기 윤장을 준거로 하면 비구니는 20세 이상의 미혼여성과 결혼한 경험이 있으면서 출가하여 2년간 육법계를 배워 이부승에서 구족계를 받은 자

24) 일진, 「최초 비구니계단 설립에 대하여」, 『운문화보』 제2호 1982년11월12일자, 운문사 편집부.

25) 이 당시에 식차마나니계와 이부승에 의한 비구니 구족계 수계여부에 관하여 다소간 시각 차이들이 보인다. 법혜 스님의 논문에서는 1982년에는 식차마나니계 수계만 있었고 본격적인 이부승수계는 1986년 제7회 단일계단에서 이루어졌다고 기술하고 있으며(법혜, 2016), 당시 불교신문에서도 '불교사상 최초로 식차마나니계 시행'이라는 제목으로 비구니 구족계가 아닌 식차마나니 수계를 크게 기사화시켰다. 묘엄 스님의 인터뷰 자료를 근거로 하여 석담 스님은 '1982년 10월 한국 비구니가 비구니 이부승구족계 수계제도 부활시켰을 때 수계자들은 일주일 만에 식차마나와 비구니 구족계 수계를 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직접 참석한 기억으로 1982년 당시 비구니 별소계 단에 의한 여법한 비구니 구족계 수계가 있었다. 그러므로 1982년 이부승수계가 여법하게 복원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6) 이 기념책자를 필자는 지금까지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다. 발간사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상최초로 실시되는 일로서 세태의 변화에 따라 승가의 계율의식이 희박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계율이 철저하면 곧 불법이 구주하게 되는 것임을 자각할 때 앞으로 실시된 비구니 계단의 의의는 지대한 것이며 비구니 수행에 획기적인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한국불교사의 앞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비구니 계단 개설을 앞두고 그에 대비한 수련과 비구니계율강의를 실시하여 앞으로 구체적인 계율 의식의 확립과 철저한 수행을 통하여 비구니계 단을 이어나갈 많은 비구니율사님들을 위한 금번 법회의 의미는 시방세계 불보살님이 함께 환희하실 희유한 일이며 우리 교단의 미래에 서광이 비칠 상서로운 일이기에 그 표상으로 작은 책자를 꾸민다.'라고 밝히고 있다.

27) 『單一戒壇 二十年』 조계종계단위원회, 토방, 2001.

28) 석담, 「현대 한국비구니 이부승구족계수계제도의 부활」, 『세주묘엄강주 오십년기념논총』, 봉녕사승가대학, 2007.

29) 해주 (2007)

30) 3주간 실시되던 교육기간이 2010년 2주간으로 단축되었고, 2017년 제52기 수계교육부터 다시 10일간으로 단축되었다.

이다. 식차마나는 18세의 미혼이거나 또는 결혼 경험이 있으면서 출가하여 2년간 식차마나계를 받은 여성출가자를 말한다. 초기에 비구니 수계는 미혼인 경우와 결혼 경험이 있는 경우 출가 연령이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³¹⁾ 그러므로 미혼일 경우, 18세에 식차마나니계를 받고 20세에 구족계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미의 경우와 같은 20세 수계이다. 그러나 결혼 경험이 있을 경우, 별도로 매우 어린 나이더라도 출가하여 2년간 육법을 배우고 수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³²⁾ 이 식차마나니의 원원은 기혼 여성의 출가 시 임신 여부의 확인과 교육에 따른 재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³³⁾

현재 조계종에서는 기본교육기관 3년차에 식차마나니계를 받고 있다. 비구와 다르게 비구니는 사미니에서 바로 비구니가 되지 못하고 식차마나니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조계종은 현재 선교육 후 득도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행자교육 입교부터 각 심사를 통해 자격 여부를 걸러내는 장치가 충분하게 있는 상황이므로, 현재 조계종의 입산 출가 수계제도 상황에서 식차마나니 수계의 필요성과 적합성을 한 번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족계 산림과 함께 하던 식차마나 수계는, 1995년 범어사 대성암에서 열린 제25회 단일계단에서 처음으로 독립된 수계계단이 설치되어, 구족계 수계와 별도의 식차마나 수계산림을 가졌다. 그리고 2010년 제18회 단일계단 식차마나니계 수계산림이 봉녕사 금강계단에서 실시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비구니 도량에

서 수계식이 치러지고 있다는 사실도 비구니 계단의 독립적인 체계가 잡혀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조계종의 일부승수계의식은 전체적으로 정착되었다고 보여 진다.

이부승수계가 정착되던 1986년, 불교신문 기사를 통해 수계 과정과 절차의 대강을 살펴볼 수 있다.

불기2530(1986)년 9월 2일부터9월 5일까지 부산 범어사에서 제7회 단일계단 수계산림이 거행되었다.

본 계단에서는 사미계와 구족계를 수계했다. 사미 157명, 사미니 161명, 비구 143명, 비구니 171명이 수계를 했는데 계단의 3화상으로는 자운(전계사) · 혜암(갈마사) · 일타(교수사) 스님 7중사에는 도견 · 고산 · 혜정 · 보성 · 지효 · 청하 · 도원 스님을 모시고 거행 3일간의 습의살림을 통하여 계본戒本과 해행解行을 지도받았다.

수계식은 2일 12시 30분 비구계수계, 오후2시 사미계수계, 오후 4시 사미니계수계, 5일 아침 7시 비구니 별소계단 예비수계, 12시 30분 비구니 본소계단 수계순으로 수계했다.

특히 비구니수계자들은 본소계단 수계에 앞서 비구니 3화상 인홍(전계) · 묘엄(갈마) · 명성(교수) 스님과 7중사 법선 · 지현 · 벽안 · 보인 · 법희 · 정화 · 창일 스님을 모시고 별소계단 수계식을 가졌다. 수계를 마친 비구니 수계자들은 다시 본소계단에서 자운 스님의 증명을 받았다.³⁴⁾

〈다음 호에 계속〉

31) 사미가 비구가 되는 최소연령이 예외없이 20세로 정해져 있는 반면 여성출가자의 경우 기혼일 경우 수계 제한 연령이 대폭 낮아진다. 사분율을 비롯한 대부분의 율장에서 12세부터 수계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사사기 시즈카, 앞의 책)

32) '만약 비구니가 12세가 되었고 결혼경험이 있으며 2년간 육법을 배웠더라도 승가의 허락이 없는 이를 수계시키면 단타이다.'라는 팔리율장의 서술로 보아 결혼한 적이 있었던 여성은 10세에 출가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벽공) 「미하승기율」에는 사미니가 되기 위한 최소연령을 7세라고 하는 규정도 있다. (사사기 시즈카, 앞의 책)

33) 「십송율」에 이와 같은 이유를 명기하고 있다. (사사기 시즈카, 앞의 책)

34) 「불교신문」 1986년 9월 10일자

자작자수自作自受

도영 / 대교과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 이네)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 이네)

진실로 그 행복과 불행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니네)

- 법구경 -

불교와 자이나교의 불살생不殺生 이론 고찰

법일 / 사집과

목차

- I. 시작하는 말
- II. 불교와 자이나교의 불살생
 - 1. 불살생 원리의 기원
 - 2. 불살생의 서誓와 계戒
 - 3. 불살생의 수행법 비교
- III. 맺음 말

I. 시작하는 말

인도 사회의 대표적인 윤리 원칙인 불살생원리 不殺生原理는 채식주의로 대변되는 현대 인도인의 식생활 문화에서부터 정치 사회 및 종교의 전 영역에 걸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 중요한 실천 규범이

다. 일반적으로 불살생계는 불교 교단에서 최초로 정립시킨 원칙이며, 아쇼카왕의 불법 선양과 더불어서 인도 전역에 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고우타마 봇다로부터 시작된 불교의 역사가 자이나교의 역사보다 선행한다고 보는 입장과 그 궤를 같이 하지만, 이에 대하여 견해를 달리하는 입장도 있다.

붓다의 교설이 상당 부분 독창적인 부분은 인정하지만, 교단의 운영 측면이나, 규범을 위한 계율들은 꼭 불교만의 것으로 불교 교단에서 가장 먼저 정립되었다고 단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봇다의 정각을 시점으로 하여 형성된 불교 교단도 이전부터 내려오던 스라마나 교단의 한 일파로 고대로부터 전승되어 내려오던 부분들을 수정 보완하여 수용한 입장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 논고에서는 불살생 원리에 대한 다양한 학설 가운데 브라흐마나 전통과 스라마나 전통 중 어느 쪽에서 기원하였는지, 또 자이나교와 5서誓와 불교의 5계戒의 동이점과 불살생의 수행법 비교에 대하여 논점을 요약해 보았다.

II. 불교와 자이나교의 불살생

1. 불살생 원리의 기원

먼저 브라흐마나 전통에서 불살생 원리가 기원했다고 보는 입장은 인도의 모든 전통의 시발점이 베다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전하는 문헌에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으나, ‘불살생不殺生’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나온 것은 ‘우파니샤드’ 가운데 ‘사제들의 선물’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베다 아래로 브라흐마나 전통 내에서 형성되어져 우파니샤드 시대 이후에야 비로소 사회 전반에 걸쳐서 불살생 주의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현대에 이르러서 더욱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힌두 민족 근

본주의적 입장과 같다. 그러나 브라흐마나 전통의 희생 제의에서 행해졌던 유혈流血 공희供犧에 대한 반대 입장인 스라마나 교단의 강력한 불살생주의의 영향으로 인하여 점차로 브라마나 교단에서도 무혈無血의 공희로 대체되어 갔다고 보는 관점이 일반적이다.

한편 스라마나 전통에서 그 기원을 찾는 입장에서는 크게 자이나교 기원설과 불교 기원설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학설상의 대립은 봇다의 생존 연대와 자이나교의 제24대 조사인 마하비라의 생존 연대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마하비라와 봇다, 두 인물의 생존 연대에 대해서는 학설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단정지어 말하기 어렵다. 불교 기원설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마하비라가 자이나교의 개조이고 그의 연대가 봇다보다 후대라고 간주하고 있지만 그 근거가 매우 애매하다. 왜냐하면 가장 단적인 이유로 초기 불교 경전 속에서 봇다의 생존 중에 이미 마하비라가 열반에 들었다는 내용이 있으며, 문헌의 비교 연구에 따르면 마하비라가 봇다보다 먼저 활동했다는 내용을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이나 교단에서는 리샤바를 제1대 조사로 신봉하고 모든 교리의 시초가 리샤바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한다. 또 마하비라가 불살생을 처음으로 주창했다고 보지도 않는다. 오히려 문헌적인 근거가 뒷받침되고 있는 제22대 아리슈타네미 조사로부터 불살생 원리가 시작되었다고 본다. 자이나교의 초기 경전과 아리슈타네미 조사의 일생을 전하고 있는 『후독경後讀經』에서는 그의 출가 동기가 살생에 대한 혐오감에서 비롯되었다고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결혼식 때 쓰일 음식 재료로 동물들이 감금되어 있는 것을 보고서 “만약에 나를 위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살해된다면, 나는 다음 세상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한 뒤 출가수행의 길을 떠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화에도 나타나 있듯이 불살생주의가

오로지 브라흐마나 교단에서 행하던 유혈 공희를 반대하고자 강조되었던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윤회와 전생을 전제하는 스라마나 전통에 따라 불교와 자이나교 모두 살생을 범한 경우에 그 주체는 재생再生할 때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악한 업(karma)을 쌓았기에 그에 따른 결과를 받게 된다는 것이지 희생된 동물의 보복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불살생 원리의 기원이 언제라고 단정하는 것은 고대 문헌이 희소한 까닭에 쉬운 작업이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브라흐마나 전통에서 희생 제의에 쓰였던 동물들과 그 살생을 담당한 집행자에 대해서 신의 이름으로 정화시키고 살생이 아니라고 부인한다고 하여도, 스라마나의 이상과는 괴리된 논리를 폈던 것은 분명하다. 다만 동일한 스라마나 전통을 따르면서도 불교 문헌에서는 유혈의 희생 제의에 대한 반감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자이나교에서는 존재의 평등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난다.

2. 불살생의 서誓와 계戒

불교와 자이나교는 매우 유사한 종교이다. 각각 5계戒와 5서誓라는 종교 규범이 있다. 불교는 불살생·불망어·불투도·불음행·불음주이고, 자이나교는 불살생·불망어·불투도·불음행·무소유로 모두 스라마나 전통을 이어받아서 불살생을 제1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5계와 5서는 각각의 교단에 입문하는 경우에 가장 먼저 받게 되는 기본 규범이며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곧 해당 교단의 교도라는 정체성을 획득하는 길이 된다. 그러나 서로 일치하지 않는 다른 한 조목으로 인하여 두 종교의 상이점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불음주不飲酒와 무소유不所有의 유무에서 비롯된다. 불교 교단에서는 무소유를 5계 가운데 하나로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봇다 당대로부터 현대 교단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강조되고 있는 생활의 근본 규범이다.

자이나교에서는 그 수지受持의 엄격성 정도로 출가자의 5대서大誓와 재가자의 5小誓를 구별한다. 파탄잘리의 『요가수트라』에서 불살생의 묘사가 자이나교 문헌의 내용과 유사하여, 폭력을 행하든지 폭력을 야기하든지 용인하는 것에 대하여 비난하고 대서는 때, 장소, 상황에 따라 제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¹⁾으로 보아 그 세부 내용이 자이나교의 예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불교의 불살생계는 다른 조목들과 상호 독립적인 내용으로 진술되고 있으나 자이나교의 5서는 불살생서不殺生誓를 제외한 나머지 네 조목들이 모두 불살생서를 지키기 위한 세부 조목으로 되어있다. 그것은 자이나교에서 불살생서를 준수해야 하는 이유가 단순히 생물학적 존재를 보호하는 데에 한정되지 않고 만물에 영혼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로 인하여 엄격한 수행방식이 도출된다. 살생의 객체는 영혼이라기보다는 생기生氣라고 번역되는 '프라나'이다. 이것을 5감각, 3행, 호흡 수명으로 총 열 가지로 세분細分하는데 10종의 생기들이 모여서 영혼의 생명력을 이루고 있다고 하며 그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살상殺傷이 성립된다는 입장이다.

불교에서도 불살생계를 제 첫 번째 계로 언급하고 있지만 그 대상의 범위는 동일하지 않다. 불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생명이 있는 것을 유정有情, sattva 또는 중생이라고 한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나락생(지옥)과 천신·인간·방생 등을 중생에 포함시키지만, 식물체는 제외시키는 점이 자이나교와 다르다. 불교에서는 영원불변의 실재를 인정하지 않으며, 존재란 여러 요소들이 일시적으로 화합하여 생명이 유지되는 것일 뿐이라고 정의한다. 다

수의 불교 학자들은 불교에서는 행위자의 의도 또는 동기를 중시하고, 자이나교에서는 행위 또는 결과를 중시하는 것이 두 교의상의 차이점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이러한 해석은 불교 경전에서 의업意業을 중시하는 것과 달리 자이나교에서는 신업身業을 더 중시한다고 설명하는 것에 근거를 둔 것으로 보인다.

3. 불살생의 수행법 비교

이처럼 불살생의 대상 존재로서의 생명을 인정하는 범위의 차이에 따라서 불교와 자이나교의 수행법이 크게 달라진다. 불교에서는 불살생계를 준수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살생하지 않으면 된다. 살상의 객체로 인정되는 범위가 자이나교보다 좁기 때문에 불살생의 대상도 많이 줄어들게 된다. 자이나교에서는 심행·구행·신행, 즉 3행을 10종 생기에 포함시키고, 영혼의 생명성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마음, 말, 몸 등으로 짓게 되는 어떠한 악행도 모두 살상殺傷과 관련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자이나교에서 영혼을 완전히 정화시킨 최종 단계인 전지全知에 이르기까지 출가자와 재가자는 여러 가지 수행법을 실천한다. 그 가운데 안거수행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자이나교는 우기 동안의 안거수행을 인도 종교들 중 가장 먼저 정립하였다. 그들은 불살생계를 온전히 지키기 위하여 우기 동안에만 예외적으로 집안에서 생활한다. 안거의 이유는 우기 동안에 생명체의 번식이나 활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생명을 해칠 의도가 없더라도 예기치 않은 살생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불교는 대체로 모든 것을 개차법이라고 하여 그에 맞춰 생활하고 활용하지만 자이나교는 그렇지 않다. 의생활과

1) Chapple, Christopher Key, Nonviolence To Animals, Earth, And Self In Asian Traditions(1st ed., Albany, NY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3), p.129

관련된 것은 모두 살생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음식 순질조차 태양이 떠 있을 때만 가능하다.

또한 음식섭취에 관련해서는 불교는 오후 불식을 기본적으로 행하고 탁발을 통해 들어온 공양물을 모두 나누어 먹지만 자이나교는 극심한 고행주의를 선택한다. 자이나교의 큰 수행법이 바로 단식이다. 한 사람이라는 존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음식섭취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음식섭취로 인해서 살생이 야기될 수밖에 없으므로 음식 섭취를 최대한 절제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다. 이와 관련하여서 ‘죽을 때까지 단식하는 것’, ‘단식 끝에 죽는 고행’을 최고로 여기는데 이것이 ‘정사서正死誓, sallekhan vrata’라고 하는 가장 이상적인 죽음의 방식이다. 엄격한 수행 조건이 갖추어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자이나스트들의 최고의 임종방식인 것이다.

이밖에도 자이나교의 수행법은 거의 전부가 불살생과 관련되어 있다. 하루에 한 끼만 먹기, 일몰 후의 식사 금지, 양치 금지, 목욕 금지, 하루에 물 한 동이 가지고 다니기, 입 가리개 착용(파에 따라 다르다), 텔채를 가지고 다니는 것, 하루 종일 걷기, 그리고 앓을 맨 무조건 부채로 바닥을 쓸고 앓기, 한 달에 한 번 수염과 머리카락을 손으로 뽑기 등의 극심한 고행이 모두 불살생의 계율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수면을 억제하는 이유도 무의식 상태에서 살생을 범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모습은 분명 지나치게 극단적이며 비현실적이어서 일단에서는 웃을 벗고 다니는 공의 파空衣派 수행자를 ‘무참無慙 외도’라고 폄하하거나 병중의 환자와 다를 바 없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하지만, 그들의 수행법이 인도 초기에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어떠한 수정도 없이 불살생의 이상을 고수해 올 수 있었던 것은 극심한 고행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그들 나름의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세파를 견디고 지금까지 전승되어 교단을 유지해 오는 것은 대단히 경외스러운 일인 것이다.

III. 맷음 말

불살생주의를 불교의 입장과 자이나교의 입장 그리고 그에 따른 수행법의 발전으로 까지 알아보았다. 불교에서도 자이나교와 유사한 내용의 계와 율을 정하고 있지만 극단적인 불살생이 아닌 중도中道에 기반하여 평이하고 완화한 불살생의 원리를 이야기한다.

힌두교·불교·자이나교의 입장을 간명하게 요약하여 보면 “힌두교에서는 죽이기도 하고 먹기도 한다. 불교에서는 죽이지는 않으나 먹기는 한다. 자이나교에서는 죽이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다.” 물론 이와 같은 단언에는 반론이 따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말하는 이면에는 자이나교의 수행법이 매우 엄격하고 지나치게 극단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

불교에서는 불살생의 논거로서 생명의 가치를 중시하면서 자비와 연민의 미덕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자이나교에서는 자비와 연민은 감정일 따름이라는 것을 지적한다. 불살생서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그 행위 주체의 해탈이 저해되기 때문이다. 단순히 다른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자비심이 필요한 것에 그치지 않고, 최종적인 자신의 해탈을 얻기 위해서 기필코 살생을 자제해야 하며, 그 결과로써 업의 제어와 지멸을 성취하고 마침내 궁극적인 해탈에 도달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

물론 자이나교에서도 ‘모든 존재의 공존 공영’을 표어로 삼기도 하지만, 불살생주의의 초점은 오로지 해탈을 위한 업의 소멸이라는 한 점으로 응집되어진다. 그것이 불교의 불살생론과 다른 점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요컨대 불교와 자이나교는 존재론뿐 아니라 업론에 대한 관점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불살생의 계와 서라는 동일한 조목에 대한 실천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

운수단상雲水斷想 - 전한 바 없이 전하다 나무불



출가해서 수행한다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없는 큰일이지요. 부모형제의 집착도 놓아야 되고 다시 오욕五慾의 즐거움도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출가하는 것은 견성성불見性成佛하여 대도를 밝혀서 다생의 부모인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이지요. 그 길을 올바르게 배우기 위해서 학인들은 총림의 대중을 찾아갑니다.

총림에는 각고수행刻苦修行하여 오도悟道하신 방장과 어른스님들이 계시고 도를 배우고자 하는 학인들이 끊임없이 운집하지요.

그렇게 대중을 이루어서 수행가풍과 전통이 나타나 이어집니다. 무소유의 청정한 가풍과 용상방을 이루어 자기 일을 자기가 하며 서로 돋고 탁마琢磨하는 수행전통이 부처님으로부터 이어져왔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섭존자에게 혜명을 전하시고 열반에 드신 뒤 널리 여러 국토에 불법이 전해졌습니다. 각기 그 국토와 민족의 풍습을 따라서 병에 따른 약처럼 부처님의 지

혜와 자비의 법이 전파되었지요. 우리 한국에도 산수 좋은 최고명당에는 어김없이 부처님을 모신 절이 들어섰지요. 절이 들어서서 운수납자가 모여들어 수행정진하고 그 지역을 교화하여 민심을 선善하게 하고 올바르게 인도합니다.

서기瑞氣 가득한 명산의 좋은 도량에서 부처님의 경을 배우며 성불도생佛度生의 비원悲願을 품는 것은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도량에는 도덕이 높은 어른스님과 경험 많은 선배스님과 위없는 비원을 품은 도반들이 함께하여 가르치고 배우고 익히지요. 참 성스런 구도求道의 모임입니다. 구족한 수행대중이지요.

이 구족한 수행대중은 바닷물과 같습니다. 강물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흘러와서 바다에서 만나 한 모습, 한 빛깔, 한 맛이 되어 영원히 썩지 않고 불구부정不垢不淨하고 부증불감不增不減하듯, 고향도 성함도 모습도 성격도 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삭발염의削髮染衣하고 보리심을 발하여 견성성불의 길을 밝히는 대중을 이룹니다. 언제나 한 모습 한맛인 우리 대중은 우리가 귀의하는 부처님이지요. 이런 우리 대중을 화합하게 하는 대중의 청규는 곧 불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대중은 누구나 대중을 지극히 존중하여 받들고 대중의 청규에 수순하여 화합 대중을 이루어야 합니다.

대중을 모시고 청규 따라 노력하는 중에 마음에 수긍이 안 되고 번뇌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내가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 생에 잘못 익힌 버릇이 나타나 내 수행의 길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중 법에 수순하지 않고 미혹한 마음으로 고뇌가 되면 얼른 염불하며 그런 마음을 비워 버려야 되지요. 오로지 대중을 받들며 대중의 청규 따라서 경을 배우고 수행하다보면 차츰 자기 개인의 생각을 내려놓게 되지요. 자기를 내려놓은 만큼 편안하게 됩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비우면 고요하여 깨끗해지지요. 자기 마음이 고요하고 깨끗하면 실상實相이 바로 보입니다.

그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는 여래의 계율을 지니고 응량기, 곧 발우를 얻지요. 우리들이 부처님의 가사와 발우를 얻고 계율을 지니면 한평생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른 망상 할 것이 없고 그저 배우며 수행할 따름이지요.

그러니 예불하고 입선하며 공양하고 울력하며 삭발하고 목욕하는 등의 모든 일과가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야 하고, 대중 차서次序를 놓치지 않아야 하고, 시간을 지켜야 하며, 양을 맞춰 먹어야 하고, 좋고 나쁜 생각을 갖지 않아야 하지요. 다소 고행스런 일과입니다. 그런 고행스런 대중생활 속에서 우리는 여러 생에 잘못 익혀온 습성을 잘 닦을 수 있습니다.

대중 중에 원만하고 여법한 분은 ‘아! 나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깨닫게 해주는 순행順行보살이고, 어긋나게 잘 못해서 비난받는 분은 ‘아! 저렇게 하면 대중에 누가 되고 본인도

악도에 떨어져 괴롭겠구나,’ 하고 나의 게으름과 잘못됨을 잘 닦아주는 역행逆行보살입니다.

그래서 대중은 부처님입니다. 선후배스님들은 선지식입니다. 서로 돋는 도반들은 보살입니다.

이렇게 대중을 화합하는 청규는 부처님의 범인 것입니다.

대중에서 이렇게 견성성불의 길을 잘 익힌 학인들은 다시 운수雲水의 길을 나서지요.

구름이 하늘에 있되 집착하여 머뭄이 없고 물이 청산에서 쉼 없이 흘러 바다에 들어가듯, 모든 소유와 욕망을 비워버리고 일체 장애를 잘 넘으며 온갖 유혹을 떨쳐버리고 대각의 바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 해 전의 이야기입니다.

운수雲水로서 대중생활을 여러 해 하다가 토굴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길이 다하고 물이 다한 깊은 산곡에 들어가 작은 토암吐庵을 지어 보았지요. 먼저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산과 물과 바람에 부탁했습니다. 여기 한적한 골짜기에서 운수가 머물게 도와 주소서!

그리곤 가을 건조기라 토암을 지을 흙벽돌 천수백장을 찍어 말렸지요. 그런 후로 이런저런 일을 하며 혼자 땅을 고르고 있으니 산촌마을 사람 모두가 와서 토굴 앉힐 자리에 축담 쌓고 고르고 하며 이를 동안 도와 주네요. 넉 달 동안 토암 터를 닦았는데 흙 나오면 흙을 모우고, 돌 나오면 돌을 모으며, 마사가 나오면 마사대로 모았지요.

토굴마당에 마니산이 세 개나 들어섰네요. 흙산, 돌산, 마사산이 삼보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쌓아 모은 흙과
돌과 마사가 토암을 짓는데
그대로 다 들어가 보배로이
쓰였지요.

이렇게 낮에는 토굴 짓
는 일하고 저녁에는 예불하
고 나를 살펴보며 토굴생활
이 시작되었습니다. 별스레
배우고 익힌 것이 없는 처지
라 그저 대중大衆에서 몸으
로 익힌 것이 마음에 남아서
혼자 살아도 발우공양을 하
고 예불하고 입선하는 것도 그런 마음이었지요.



한번은 여기 지방의 한 인사人士가 점심시간에 들려서 함께 공양했지요. 발우공양을 처음해
본지라 특별한 감회를 느꼈는지 말씀을 하시네요. “발우공양이 참 좋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면
전국의 청년들 200명 정도 모일 수 있으니 스님께서 발우공양하며 법문 좀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하네요. 그런 후로 자주 와서 도와 주시곤 했습니다. 하루는 말씀하시기를 “제가 전국의 좋은 절 구경은 많이 했습니다만 신발 벗고 법당에 들어가 절한 것은 여기 토굴법당이 처음입니다.” 후에 또 말하기를 “사실은 제가 기독교 모태신앙인이었습니다.” 하며 불자로서의 다행하고 기쁜 예禮를 보이네요.

그렇게 토굴을 지으며 채소랑 들깨랑 콩 등 필요한 농산물 가꾸며 참고하느라 일기처럼 떠
오르는 대로 메모한 것들을 누가 책으로 내 놓았지요. 그 책을 읽어본 어느 독자가 편지를 보냈
네요. “스님의 글이 마음에 닿아서 책상위에 놓고 매일 보고 있습니다. 글로서 마음을 편하게
하시더니 식사하는 것도 사람을 깨닫게 하시네요. 저는 천주교인으로서 무척 부끄럽게 느겼습
니다. 스님께선 가시는 곳마다 사람을 그렇게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라고 썼
네요.

또 한 분의 이상한 인연의 손님이 오셨습니다. 대학교수인데 부인의 권유로 어느 불자와 함
께 오셨지요. 앉을 자리가 흙벽돌로 쌓아올린 법당 겸 선방 겸 내가 사는 큰방이었지요. 거기서
두 부부와 스님이 환담했지요. 교수는 천문학박사라 별 이야기가 특별했고, 스님은 풀숲에 묻혀
사는 무지렁이라 솔직한 마음의 대화였지요. 돈이 급하고 명예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황당하고
한가한 얘기였겠지요. 그런 후 교수님은 앞으로 여생을 구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지요.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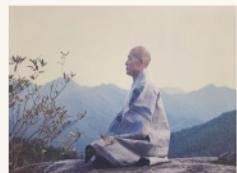
래서 20대 중반에 서울대 교단에 선 후 정년퇴직에 이르도록 봉사하던 교직을 내려놓았지요. 그 후 지금 80대 중반을 넘기며 구도에 여념이 없으시다 합니다.

천상곡 고반考槃마을에 노인들이 여러분 계셨습니다. 석씨 노인, 안씨 노인 등 18분의 노인 내외분이 계셨습니다. 우연히 찾아온 스님의 귀띔으로 밤에는 불경 배우고, 낮에는 일하며 염불 익히느라 참 재미나게 사셨습니다. 모두가 정성으로 토굴 일을 보살펴 줬지요. 지금은 다 가시고 있지만, 그중에 석씨 노인은 103세에 가셨는데 불심의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안씨 노인은 하도 착하고 진실하여 내가 여쭈었지요. “거사님 혹 인도 환생하신다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하니 대답하시기를 “할 수만 있다면 스님을 하고 싶습니다.” 하시네요. 내가 다시 말씀 드리길 “그러시다면 그때는 늦고 지금하면 좋습니다.” 하였지요. 그 후로 안씨 노인은 절에 오실 적에는 꼭 법복을 입고 오시네요. 끊기 어려운 담배 술을 끊은 바 없이 끊고, 육식을 삼가며 집에서도, 식당가게에서도 언제 익혔는지 발우공양 식으로 깨끗이 하시네요. 그렇게 자신을 닦다가 자식에게 유언을 남기고 조용히 가셨습니다.

출가 수행자가 견성성불하면 널리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합니다.

함이 없이 행하고 전함이 없이 전하여 각색인류各色人類는 바른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승가대중의 법도는 우리 불자뿐만 아니라 세상곳곳에 풍류를 타고 흘러 퍼지지요. 도탄塗炭에 빠져 길 잊은 모든 인류에게 깨달음의 언어로 전한 바 없이 전해집니다.

나무불. 



나무불

나무불 스님은 경북 성주군 금수면에 있는 천상산 길상도량에서 이웃한 사람들과, 자연과 함께 살면서 '소 먹이는 일'을 배우고 있다. 은사스님으로부터 지혜智海라는 법명을 받았지만 이곳 사람들은 스님을 '나무불' 스님이라고 부른다. 만나면 '나무불'이라고 인사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이 법명처럼 되어 불리고 있다.

저서로는 『세상에서 참 행복한 사람』, 『마음의 고향에 돌아가야 하리』 등이 있다.

還至本處를願하며…

보선 / 사교과

그대여 還至本處 하라

어디에서 一物을 찾는가.

尋牛圖 안동자처럼

헤매어 무엇하겠는가.

이미 因緣 하였으니

우리 같이 찾아보세.

그대의 빈 자리는

春來草自青 이로다.

어서와 敷座而坐하시게

우리가 함께 공부해 나가는

이곳이 放身命處일새.





다음 세대의 납자를 기다리며

– 위봉사 주지 송욱 스님

대겸 / 사교과

처음 동행하는 사찰 탐방을 30기 선배 송욱 스님께서 주지로 계신 위봉사 선원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는 내심 기대가 되었다. 운문지를 통해 다양한 선배 스님들의 이야기를 접해 오면서, 포교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최근의 선배 탐방과는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아서였다.

위봉사는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추출산 중턱에 있는 사찰로,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인 금산사의 말사다. 신라 말, 봉황 세 마리가 노는 자리에 사찰을 중창하여 현재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설이 호기심을 자극한다. 산 아래 오성 한옥마을에서 돌담을 따라 꼬불꼬불한 산길을 올라가다 보니 어느새 성벽의 망루와도 같은 위용을 뽐내는 일주문이 나왔다. 한창 날이 더운 오후, 자갈이 깔린 위봉사 도량은 멋스럽고 정갈한 모습이었다. 경내 중앙에 우뚝 서서 사방으로 가지를 뻗은 소나무가 눈길을 사로잡았고, 보광명전(보물 제608호)의 팔작지붕은 산등성이와 멋진 조화를 이루었다.

위봉사로 탐방을 가게 된 것은 한 선배스님을 통해서였다. 위봉사에서 한 철 동안 기도와 울력, 참선을 병행하는 등 대중에 참여하며 지냈던 경험이 너무 좋아서 꼭 후배들에게 소개해 줘야겠다고 하셨단다. 주지스님께서는 더운데 면길 오느라 고생이 많았다면 편안한 미소로 맞아 주셨다.

“현재 위봉사는 본방 스님들 외에도 여러 스님들이 소임을 살면서 기도도 하고 틈틈이 함께 정진하는 체제로 흘러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스님이 너무 많아서 수용할 곳이 없었는데, 지금은 절집마다 사세가 갖춰지고 나니 스님이 없어요. 다시 옛날처럼 모여 살아야 할 때가 온 거죠. 위봉사에도 노후대책 없이 제방에서 수행하던 비구니스님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행처가 지어질 예정이에요.”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출가자 감소라는 키워드로 흘렀다. 요즘 선원에도 첫 철을 나려 오는 스님들이 없다며 강원 졸업과 동시에 선방에서 첫 철을 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셨다.

“우리 세대는 참선만이 도인이 되는 길이라 믿고 선방에서 공부만 하고 살았어요. 학인들에게 선방을 권유하는 건, 실참만이 타인에게 울림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를 해도 경험을 얘기하는 것과 부처님 말씀을 외워서 전하는 건 다르니까요. 저 역시 선방에서 정진하던 힘으로 신도들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첫 철을 나면 자기 업을 볼 수 있어요. 보통 내가 어떤 업을 가지고 어떻게 마음을 쓰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 꿀을 잘 살펴서 정리하다 보면 자리가 잡히고 화두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선방에서 나는 첫 철이에요. 위봉사는 큰방에서 아침마다 큰스님들의 녹음 법문을 듣고 정진을 시작해요. 초참들이 적용하기 좋죠.”

말씀을 들으며 운문사에서 치열하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떠올랐다. 어느덧 강원살이 3년 차, 졸업하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으니 당연했으리라. 〈서장〉, 〈도서〉를 배우는 내내 선방행을 강조하셨던 강사님들도 떠올랐다. 졸업 후 소임을 살거나 학교에 가야 하는 다수 학인들의 사정을 알면서도 일부러 더 그러신다고 모두가 암묵적으로 생각해 오던 바, 현실과 희망 사이의 간극에서 오는 고민을 덜어줄 조언이 절실했다.

“어른들도 상좌가 스스로 수행자가 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해요. 그런데 선방에 못 가는 스님은 본인이 인연을 짓지 않았던 경우가 많아요. 나는 내원사에서 수좌스님 밑으로 출가했으니 인연이 많았지만 소임 사느라 몇 년씩 못 나오는 도반도 꽤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을 하든 자기 자신을 정리하고 시작해야 해요. 선방에 못 간다면 틈틈이 화두를 들면 돼요. 일상 속에서 힘든 걸 해내는 게 수행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선지식을 만나 선방에 갈 수 있는 인연이 생기고, 가서는 참선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 할 수 있는 한에서 기반을 만들어 둬요.”

말씀을 듣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졸업 후 각자가 향하게 될 처소에 따라 할 수 있는 수행마저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지스님께서는 도반들과 강원에서 공부하던 이야기를 해주셨다.





“그땐 참 힘들었는데, 그게 사실 재밌었다는 말이에요. 강원에서 한 도반이 해준 말이 있어요. ‘시방무비선十方無非禪’. 시방에 선이 아닌 것이 없다는 말이죠. 멀리서 선을 찾지 말고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걸 하자, 하는 생각에 저녁 입선 때 도반들과 물을 한 바가지씩 마시곤 했어요. 밤중에 깨서 정랑에 다녀왔다가 그대로 함께 정진한 거예요. 달이 밝아서 잠이 안 올 때면 전각 사이를 오가며 그 시간을 즐겼고, 산에서 시간 맞춰 내려온다고 고무신 신고 달리다가 빌틈도 빼져 보고, 참 맹렬하게 살았어요. 그 시간들이 힘이 되어서 졸업까지 마칠 수 있었죠. 그때는 그런 재미가 있었는데, 갈수록 그런 낭만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선방 가기를 발원하며 새벽같이 법당에서 절하던 일, 밤새우며 사경하던 일 등 다양한 일화를 들을 수 있었다. 한편 강원의 빈틈없는 일정 속에서 학인들이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힌트가 되는 말씀도 들을 수 있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포교에 무게가 실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젊은 수행자들이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우리도 강원에서 참선할 시간이 따로 있었으면 싶었어요.



한때 있었다가 학인들이 너무 조는 바람에 없어졌다던데, 그것도 과정이고 공부예요. 졸고 망상하는 게 당연하죠, 아직 성근데. 그 과정을 겪게끔 두면 어느 순간 전환점이 생기거든요. 그러니 일단은 졸아 봐야 해요. 운문사는 문수선원이 있으니까, 학인들은 재학 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선방 생활을 해보도록 해요. 그래야 참선하는 사람이 생겨요. 지금은 강원 체제가 많이 바뀐 듯한데, 세월이 바뀌어도 승려로서 갖춰야 하는 수행은 그대로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매일같이 겪치는 소임과 학업, 울력 등으로 바쁜 와중에도 늘 참선에 아쉬움이 들끓던 도반들의 귀가 번쩍 뜨일 이야기였다. 주지스님께서는 짙은 여운을 남기는 말씀으로 시간 가는 줄 몰랐던 오후를 마무리해 주셨다.

“수행하다 보면 이 순간이 다구나,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때가 있고, 그게 지나면 과거의 일이 되고, 또 정진하다 보면 그 기억이 다 소급돼요. 결과적으로 과거·현재·미래가 이 순간에 다 공존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본래 부처라잖아요? 그걸 찾다 보면 순간순간 자유롭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요즘은 비가 와도 좋고 날이 맑든, 덥든 좋아요. 여름이니까. 또 조금 있으면 춥다고 난리일 거 아니에요. 우린 늘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말로만 듣고 글로만 접했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강원과 선방에서의 살아 있는 기억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만 같았다. 실참의 세월에서 우리나라 선배스님의 다정한 말씀에는 수행자의 자부심이, 그리고 운문사와 후배들을 향한 관심과 애정이 가득했다. 무용담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추억과 더불어 학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처방해 주신 수행담을 들으며 덩달아 행복했다. 주지스님께서는 현재를 즐기라는 말씀에 덧붙여 “물 한 바가지씩 먹고 자 봐요, 재밌어요.” 하며 웃으셨다.

누구나 겪어 보지 못한 시간과 공간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법이다. 도반들과 나는 옛 스님들이 수행하시던 선방에 대한 알 수 없는 갈망이 있었다. 하지만 수행자에게 결국 그 그리움의 지점은 ‘지금, 여기’에 수렴되지 않을까. 큰스님들 말씀을 그대로 따르며 제방에서 참선의 전통을 묵묵히 이어 오신 우리네 수좌 스님들이 중명해 주고 있듯이. 남은 강원 생활 동안 마음을 훈훈하게 데워줄 선물을 선사받은 것만 같다.☺



수행의 두레박

서우 / 사교과

‘여시아문 일시 불재사위국 기수급고독원如是我聞 一時 佛在舍衛國 柪樹給孤獨園…’

불이문 담장 밖으로 들려오는 금강경 독송소리.

행자 때부터 들었던 이 독송소리는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옵니다. 내내 그 소리를 들어도 치문반을 지나 사집반이 되어도 뜻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갈수록 귀에 친근히 익어 제 마음을 늘 평안하게 잡아 주었습니다.

사교반이 되어 본격적으로 금강경 수업을 들으며 그 경전이 얼마나 깊고 큰 뜻을 담고 있었는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수업시간 중 교수님의 말씀은 무명의 탁함으로 어수선한 저희들에게 잠시 고요함을 비추어 순간순간 빛을 보게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무아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고자 우리 모두가 호텔의 주인이라 가정하고 매일 화냄, 불안, 혹은 기쁨, 사랑과 같은 다양한 감정의 투숙객이 찾아온다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 모든 감정들은 결국 투숙객일 뿐이어서 잠깐 머물고 가버릴 손님들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들인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바로 ‘나’라고 착각하여 매일 전전긍긍하는 것은 아닐까요? 쉽고 적절한 비유 덕으로 무아의 의미를 몸으로 체화體化해 가며, 매일의 삶 속에서 가르침을 녹여나가고 있습니다.

무아를 실생활에서 직면하려면 첫번째로 나를 있는 그대로 보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 요즘입니다. 나를 본다는 것이 아주 추상적이거나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나, 그 나를 되돌아 비춰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수업을 들을 때면 교수님께서 늘 타인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걸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사실 마음으로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여전히 다른 도반들을 보며 종종 감정이 올라오고 그 사람 탓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평소처럼 도반의 거친 행동을 보며 마음이 올라왔을 때 순간적으로 그 마음이 저에게 들여다 보였습니다. 예전 같았다면 ‘왜 저 사람이 저럴까’ 하고 바로 외부를 향해 화살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감정이 올라 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그 화살이 나에게 돌아왔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도반의 행동과 제 귀에 들렸던 그 도반의 말소리는 바로 제가 내면에 가지고 있던 ‘날카로움’ 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날카로움을 가지고 있었기에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에 마음이 걸리고 감정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자 저는 이 불편한 감정의 투숙객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내고 밀어낼 것이 아니라, ‘괜찮아’ 하고 위로해줘야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안에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을 바로

본 이후부터는 더 이상 그 날카로움이 저 사람 것이 아닌 내 것임을 인정하고, 나 자신에 대한 용서와 관대함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그 도반에게 쇠꼬챙이 같이 올라왔던 그 날카로운 감정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는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서로 불편했던 도반과 아무렇지 않게 말도 걸고 편안히 지내면서, 지금까지 내가 바라보던 세상은 굴곡지고 왜곡된 점이 많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관대해지자며 스스로 마음을 다잡습니다.

매일매일 다양한 투숙객이 찾아오면 관대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노력합니다. ‘어서 와, 잘 왔어. 괜찮아.’ 이런 말로 위로하며 환대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보내줍니다. 더 이상 초조해하거나 부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특별하지도 않고 잘 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못나지도 않은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실망할 것도 기대할 것도 없는 있는 그대로의 우리. 더 이상 투숙객들을 거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관대히 받아들이며 ‘같이 공부하고 성불하자.’라고 말해 줄 수 있는 제가 되고자 매일매일 마음을 다잡습니다.

무르익어 가는 여름 태양 속 도반들의 금강경 독송소리도 같이 익어가고, 더불어 불어난 이목소의 물소리가 더해져 그 깊이를 더해가는 나날입니다. 비 갠 후 맑은 하늘처럼 우리 마음도 그러하길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

‘괜찮아, 너도 힘들겠구나. 괜찮아, 그 건 힘든 게 아니야. 자연스러운 거야.’

당연히 도반은 저에게 잘못한 것이 없었기에 도반을 향한 눈과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녹아 관대해지고 편안해지니 새로운 기대감이 생겨났습니다. 내 안에 또 어떤 마음이 있을까, 그리고 그걸 내가 다시 발견했을 때 얼마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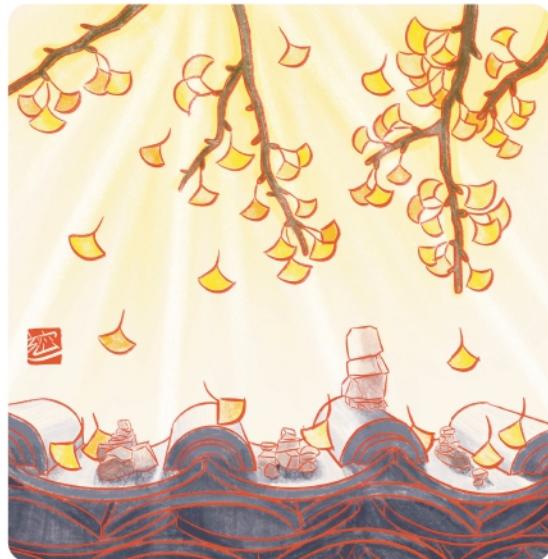
앞으로 그 어떤 감정이 올라와도 예전처럼 힘들 지

가을이 물들어가듯…

혜명 / 사미니과

봄철 치문반을 되돌아보면 대중생활의 긴장감 속에서 보냈다. 밀려오는 파도처럼 마음이 잠시도 고요하지 못하고 닥치는 일에 앞가림하느라 정신없이 바빴다. 대중생활에는 많은 소임이 있다. 그중 종두는 청풍료의 살림살이를 챙기는 도우미 역할이다. 자자, 포살, 차례법문, 발우 등 각종 행사 때 대중스님들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소임이다.

봄철 종두 소임을 사는 도반스님들을 볼 때 당연하게 생각하며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도반스님들이 쉬는 시간에 부지런히 움직이고 구석구석 살피며 대중을 위해 애쓰고 있었다는 것을, 그 고마움을 내가 여름철 종두를 지내면서 늦게나마 알게 되었다. 어디 종두 소임뿐이겠는가. 이 큰 도량의 모든 소임을 맡으신 스님들 덕분에 치문의 봄, 여름철을 건강하게 날 수 있었다.



강원의 하루는 주어진 일정에 따라 움직인다. 그중 매일 입선하고 독송하는 시간이 있다. 산문에 들어선 지 이제 겨우 몇 개월 차. 거친 삼업을 다스리는 데 입선과 독송은 많은 도움을 준다. 그동안 살아오며 몸에 익혀 온 습 때문에 입선 시간만 되면 졸음에 빠지게 된다. 독송 때는 큰 소리로 경을 읽어야 하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소리는 작게 나오고, 그것마저도 목이 아프면 좀 쉬기도 하고, 어서 시간이 지나갔으면 하고 바라기도 했다. 그런데 목소리는 안 나오는 와중, 귀는 상반스님들의 독송에 기울여졌다. 처음에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경읽는 소리를 좋아하게 되었다. 번뇌도 잠잠해지고 일념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았다. 독송 소리는 어떤

음악 소리보다도 마음에 울림이 오래 남고 여름철 무더위에 지친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하는 시원한 바람 같았다. 더운 여름 날씨에 몸은 지치고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더욱 신심이 났다. 매일 독송하고 수업하는 수행이 티끌처럼 조금씩 쌓여서 강원 생활에도 안정적으로 적응했고 입선, 독송, 수업의 재미도 더해졌다.

배우는 만큼 보이고 들린다더니, 치문『위산대원선사 경책』을 배우면서는 대중 생활에서 얼마나 타인을 존중하고 자기 수행을 해야 하는지를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다. 본문에는 다음의 구절이 나온다. “끽요喫了코 취두훤훈聚頭喧喧하야 단설인간잡화但說人間雜話하나니 연즉일기진락然即一期趁樂이여 부지락시고인不知樂是苦因이로다”. ‘먹고 나서는 머리를 맞대고 시끄럽게 떠들에 단지 세간의 잡된 말들만 하고 있나니 그러한 것은 곧 한때의 괘락을 뒤쫓는 것이라, 괘락이 고통의 원인임을 알지 못함이로다’ 라는 뜻이다.

출가 인연으로 만난 도반들은 서로를 모르기에 호기심이 있기 마련이다. 함께 지내다 보면 지대방에서 많은 대화가 오고 가고 때론 갈등도 생기게 된다. 그럴 때면 강원에 들어오기 전 사형스님들께서 해주신 말씀들이 떠올랐다. “도반의 꼴이 자신의 꼴임을 알아라.” 받아들이기에는 계속 마음에 걸리는 말씀이었다. ‘나는 저런 모습이 아닌데 왜 저게 나의 꼴이라 하는지…’

그러나 봄, 여름철을 지내면서 조금씩 인정해가는 중이다. 자신 안에 그런 모습, 마음이 없다면 느끼지 못할 텐데, 무언가 걸리는 것은 자신 안에 그 모습이 있기 때문이다. 도반끼리 세간의 마음을 나누는 것은 그 순간에는 즐겁지만, 지나고 나면 허무하고 이익이 없고 고통으로 남게 된다. 이런 경책이 있기에 조금이라도 마음챙김을 하며 수행자의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나를 낳아 준 사람은 부모이지만 나를 완성시켜 주는 자는 도반이라고 위산 대원 선사께서 말씀하셨다. 도반 서로로서가 선사의 경책에 따라 ‘성화향순 형직영단 聲和響順 形直影端’, 즉 소리가 부드러우면 매아리도 순하고 형체가 곧으면 그림자도 단정하듯이 서로 화합하며 몸소 살아가기를 바라본다.

강원에서 생활하면 승려로서 갖춰야 할 위의에 대해 많이 배우게 된다. 이곳을 거쳐 가신 수많은 수행자들의 고귀한 결의와 그 발자취를 따라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낀다.

위산 대원 선사의 마지막 말씀이다. “육근이연六根怡然하면 행주적묵行住寂默하고 일심불생一心不生하면 만법휴식萬法俱息하리라”. ‘육근이 편안하면 가고 머무는 것이 고요하고 한마음도 일어나지 아니하면 온갖 법이 다 쉬어질 것이다.’라는 뜻이다. 행주좌와 가운데서 번뇌가 속삭이는 대로 따라가고 있지 않은지 살피며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은사스님의 말씀처럼 ‘번뇌 팔아 지혜 벌기’를 실천하는 수행처임을 잊지 않아야겠다.

눈을 들어 도량을 바라보면 서서히 물들어가는 가을을 느끼게 된다. 백천만겁 지나도 만나기 어려운 법을 출가의 인연으로 만나 마음의 자유로움을 느꼈다. 가을이 물들어가듯 대중생활을 통해 여법하게 중물이 들어가기를 바란다. 마음의 깊이와 넓이가 가을 하늘을 닮아가기를… ☺

소소한 일상

지명 / 사교과



새벽 3시 30분 기상.

무거운 눈꺼풀과 아직 깨지 못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의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법당으로 향한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산속에 홀로 터벅터벅 걸어 차관에 천수물을 받아 법당으로 향한다. 법당 안에 들어가 촛불을 켜고 향 피우고 부처님께 3배의 절을 한다. 목탁을 3번 올리고 3번 내리고 잠 들어 있는 우리 동네 이웃들을 깨우는 도량석을 시작한다. ‘정구업진언’으로 시작하는 천수경으로 끝내고 법당으로 다시 발길을 돌린다. 다음은 쇠송을 시작. 쇠송의 사구계 중 가장 쉬운 “아석소조 죄악업 개유무시탐진치 종신구의지소생 일체아금개참회” 내가 알게 모르게 아침, 저녁으로 짓는 탐진치 삼독을 먼저 참회하는 것이다. 예불을 좋아하는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새벽을 이렇게 깨운다.

공양 목탁소리에 잠에서 깨는 우리 식구들. 연세 많으신 노스님들을 모시고 맛있는 공양을 시작한다. 아프신 노스님들 약부터 쟁겨드리고 차를 끓인다. ‘오늘은 어떤 차가 좋을까?’ 흥차, 무차, 꿀을 탄 아로니아,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향긋한 커피. 오늘은 나를 위한 커피로 선택하고 노스님들의 소임 살이, 선방, 동진 출가 이야기 등 과거 이야기로 아침 시간을 보내고 잠시 나만의 여유를 즐긴다.

12시, 정각에 올라가서 대종을 친다. 모든 만물들이 춤을 출 것 같은 마음으로 한 번, 두 번, 그리고 열두 번을 치고 내려와서 은사스님과 차담을 한다. 하루에 한 번 있는 내가 제일 기다리는 행복한 시간이다. 스님께서 내려 주시는 보이차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최고의 맛이다. 칭찬에 인색하신 은사스님께서 “오늘 새벽 도량석 목탁 소리 참 좋더라”라고 칭찬하시자 이를 새벽부터 달려온 지금까지의 피로는 어느 순간 눈 녹듯 사라져 버린다. 스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신다. “나는 걱정하지 말고 노스님들 잘 쟁겨드려라. 그것이 최고의 효이다.”라고…

내 방 창문 너머 몇몇의 나무들이 보인다. 동백, 매화, 치자, 감나무 등이 줄을 선 듯 쭉 뻗어 있어 작은 숲을 이루고 이를 봄부터 겨울까지 돌아가며 꽃을 피운다.

오후 뜨거운 태양이 기울 때 즈음 약간의 선선한 바람이 불면 풀들을 정리해 주어야 한다. 힘은 들지만 땅 속에 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약을 칠 수도 없다. 봄 방학 때 무성하게 자라난 풀

들을 정리해 주고 갔는데, 또 여름 늦장마까지 온 까닭인지 풀들은 아주 씩씩하게 자라났고, 그에 더해서 모기까지 극성을 부려 조금 풀이라도 제거하려 하면 흡혈귀처럼 모여드는 모기떼와 전쟁을 치러야 한다.

“저리 가, 저리 가란 말이야!” 손으로 막아보아도 난공불락이다.

이렇게 풀을 메다 보면 작은 돌 틈 사이에서도 깊게 뿌리내려 멋대로 자라고 있는 잡초들을 보노라면 야생의 생명력에 대단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풀 밑동을 움켜쥐고 잡아 올렸을 때 가볍게 올라오는 놈이 있는가 하면, 호미나 팽이로 깊게 파서 뽑아 올려야 하는 놈들도 있다. 이들의 끈질김은 나를 도전하게 만드는 녀석들이다.

이렇게 뿌리까지 제거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약을 올리듯 보란 듯이 또 무성하게 자라나겠지

~^~



내 거친 습성을 풀처럼 제거해 보지만 미세하고 끈질긴 습성은 땅 속에 웅크리고 있는 끊어진 뿌리처럼 언젠가는 다시 솟아 나올 틈만 노리고 있는 나의 오랜 습성과 같다.

지금은 폭염과 늦장마와 습기와 모기들과 싸우며 잡초와의 투쟁 중이다.

풀 속에서 숨어 있다가 사방에서 몰려드는 모기들을 이길 수 없기에 하는 수 없이 에프킬라를 꺼내 들었다. 모기약을 뿌려도 이미 물린 자리는 피가 나도록 긁어야만 시원해진다.

이렇게 모기들과 한바탕 전쟁을 치룬 다음 나로 인하여 소멸한 모기와 풀을 제거하며 소멸된 땅속의 작은 중생들을 위하여 “참회진언 음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마하” 108번 독송으로 참회를 대신한다.

저녁 공양을 마친 후 노스님들과의 소소한 이야기는 오늘 하루의 피로를 날려버린다. 막내 손주 상좌 애교에 크게 한번 웃어주시니 3년은 젊어 보이신다. 새소리, 바람 소리, 풀벌레 소리가 나는 도량을 노스님의 손을 꼭 잡고 포행한다. 매일 같은 얘기를 하루에도 네다섯 번은 듣지만 마냥 동진 같은 노스님의 미소 떤 얼굴에서 행복감을 느낀다. 늘 건강하시길...

일찍 노스님들 잠자리를 봄 드리고 나면 온전히 나의 시간. 다시 나의 쉼터에서 지친 몸을 누이며 잠시 사색에 잠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상을 돌아보다 깊은 잠에 들기도 하고, 모든 기억 다 버리고 앓아 있다가 하루 내 못했던 밀린 방학 숙제를 하고 천만금보다 더 무거운 눈꺼풀을 비벼가며 금강경 독송을 한다.

“여시아문 일시불 제사위 국기수급고독원.... 문불소설 개대환희 신수봉행”까지 무언가 부족한 듯한 하루였지만 나름 열심히 살았구나!! 혼자만의 독백으로 자화자찬을 하며 소소한 일상을 마친다. ◆

가을하늘에 비친 운문의 기상氣像

편집부



세계 비구니스님들! 연대해서 의식을 강화해요!!

26회 총동문회장단 선배스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쓱쓱싹싹~ 다함없는 산하의 샘물을
널리 산중의 벗들에게 공양하노니
각자 한 표주박을 가지고 와서 둉근달 하나씩 건져 가세요!



비로자나 부처님, 오백전 부처님 및
오백 나한님 개체 불사 원만 회향,
오백전 백일기도 입재 잘했습니다.
덕분입니다.)_



운문사 문화역사관 건립으로
운문의 역사를 이어가요~



총동문회 선배스님들을 위해
저희 학인들이 팔 걷고 나섰어요!



부처님 영산당시를 재현하듯
인도 성지순례 출업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_()



김장 울력으로 한해 마무리 잘 하세요



승시 법고시연 때 운문인의 기상을 보여 줍니다!

당신은 변화하고 있습니까?!

도솔 / 사집과



어느 날 지대방에서 무언가를 정리하기 위해 꺼낸 신문지에서 읽은 칼럼의 제목이었습니다. 제목에만 이끌려서 당연하게 불교 신문인 줄 알고서 읽기 시작한 글의 첫머리는 불교와는 어찌면 거리가 먼, 다르게 생각하면 축소판으로 볼 수 있는 국내 정치와 경제에 대한 변화를 쓴 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만 변화를 이야기할까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 지금은 내용을 잊어버려도 칼럼의 제목만큼은 잊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변화變化는 “사물의 성질, 모양, 상태 따위가 바뀌어 달라짐.”이라고 정의합니다. 세상의 변화는 외형적인 변화와 시대에 맞춰서 살아나갈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기계들의 변화가 가장 많이 떠오릅니다. 대표적으로는 누구나 가지고 있으며 무엇이든 가능하게 하는 핸드폰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하지만 수행자의 입장에서의 변화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배우는 학인學人의 입장에기에 이것이 맞다, 아니다,라고 정의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출세간出世間 하여 불법을 배우고 익혀나가면서 이런 것도 변화라고 말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변화에 대해서 미흡하지만 오롯한 저의 생각을 적어나가려 합니다.

수행자로서의 변화는 외형적인 변화도 크지만 마음과 행동의 변화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간의 모습을 버리고 발심發心하여 머리를 깎고서 스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가귀감禪家龜鑑」에서 ‘출가위승出家爲僧이 기세사호豈細事乎아 비구안일야非求安逸也며 비구온포야非求溫飽也며 비구명리야非求名利也라. 위생사야爲生死也며 위단번뇌야爲斷煩惱也며 위속불혜명야爲續佛慧命也며 위출삼계도중생야爲出三界度衆生也니라. 출가하여 스님이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라! 몸의 안일을 구하려는 것도 아니고, 따뜻이 입고 배불리 먹으려는 것도 아니며, 명예와 재물을 구하려는 것도 아니다. 나고 죽음을 면하고, 번뇌를 끊으려는 것이며, 부처님의 지혜를 이으려는 것이며, 삼계에 뛰어나서 중생을

건지려는 것이다' 의 말처럼 그저 편안함과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롯한 나 자신을 위해서 스님이 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간世間에선 일어나지 못하는 시간 또는 이제 잠이 드는 시간에 일어나서 부처님을 향해 예경禮敬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확인하고, 매일 해야 하는 기도를 잊지 않기 위해서 수지受持, 독송讀誦하고 도반들과 함께 울력을 하면서 이것저것을 배우는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부처님의 법法과 조사祖師님께서 남긴 글을 보고 배우며 내 생각과 마음 상태를 돌아보는 힘이 생기기에 행동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글로 적으면서도 이게 진정한 변화일까라는 의문이 아직도 있습니다.

아마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도 저는 답을 내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시절 인연이 도래하여 변화의 씨앗이 심겨진다면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집반인 저는 서산 대사西山大師의 선가귀감을 배우면서 글귀 한 구절구절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구절이 없습니다. 내가 출세간出世間을 하지 않았다면, “불여인단不與隣單으로 잡화마雜話麼아 - 곁에 있는 사람들과 쓸데없는 잡담이나 하며 지내지 않는가?”

“절기고선시비마아切忌鼓扇是非麼아, - 분주하게 시비나 일삼고 있지 않는가?”

“당팔풍경하야 심부동마아當八風境하야 心不動麼아, - 여덟 가지 바람이 불어올 때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가?”

“도불사목전지락都不思目前之樂이 변시신후
지고야便是身後之苦也로다 - 도대체 눈앞의 쾌락
이 바로 후생의 괴로움인 줄을 생각지 않는구나.”

이 글처럼 저는 그렇게 살아왔고, 살고 있으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변화라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아는 저이지만, 출가 전과 다르지 않은 듯한 저의 행동과 생각으로 슬럼프를 겪고 있던 저에게 이 글귀가 저의 마음에 사무치게 다가와서는 변화의 씨앗이 되었고 점점 마음과 행동을 되돌아보게 하는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부처님께 예경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마음의 변화와 평안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모른다면 내가 가고자 하는 길로 정확하게 갈 수는 없습니다.

예경과 기도를 통해서는 신심信心을 키우고 법을 통해서는 내가 가고자하는 길을 배워 나아가는 것이 수행자로서의 변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변화는 어떠한 것이며 어떠한 의미인지 글을 읽는 찰나의 시간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

생활 속에서 지구를 지키는 방법

도선 / 사미니파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노력 중이지만 기후의 변화가 인간에게 초래하는 수위는 나날이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곳이라고 불리는 미국 데스밸리(Death Valley)는 가장 뜨겁고, 건조한 국립공원으로 여름에는 섭씨 50도가 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더운 곳이지만 얼마 전 1년에 내릴 비의 75%가 내려 홍수를 겪었고 대기의 기온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파키스탄에서는 석 달의 폭우로 1000여 명이 숨지고 국토가 황폐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세계 곳곳은 기후위기를 겪고 있고 이것은 다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도 충분히 겪을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운문사승가대학에서는 일찍이 일상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지난 철의 여름불교학교의 교육을 통해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운문사승가대학이 불교적인 생활 방식을 통해 어떻게 환경을 생각하고 지키고 있는지 소개하겠습니다.



① 발우공양을 통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문사는 재배한 채소로 요리하여 인원에 맞게 조리하고 발우공양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 제로의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② 철저한 분리배출

운문사의 학인스님 모두가 가장 중요시하는 일 중 하나가 분리배출입니다.

종류별로 쓰레기통을 만들어 배출하고 플라스틱, 비닐, 유리, 종이 등의 각각의 다른 쓰레기들의 배출방법을 숙지하고 재활용 가능한 자원은 분리하고 있습니다.

③ 물 사용 줄이기

세탁 시 두 세 사람의 빨래를 모아 물을 절약하고, 샤워시간을 줄여 물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④ 종이 사용의 최소화와 비닐 제로 데이

이면지를 사용함으로 종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주 수요일마다 대중 모두 하루만이라도 비닐을 쓰지 않는 날로 정해 비닐 사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밖에 운문사 승가대학에서는 텁블러의 생활화, 전력 에너지 소비 줄이기, 승복 물려주기 등의 활동을 통해 모든 생활에서 탄소의 배출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운문사의 빽빽한 일정 속에서 이러한 실천 활동은 쉽지 않지만 운문사 스님들께서는 너무도 당연히 분리배출과 환경 지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 속 실천 모두가 부처님의 가르침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비효과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개짓이 대기에 영향을 주고 시간이 증폭되어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가?(Does the flap of a butterfly's wings in Brazil set off a tornado in Texas?)

미국의 기상학자 로렌즈(Edward Norton Lorenz)가 사소한 것이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말한 이론입니다.

이 이론을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화엄경華嚴經』에는 인드라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드라라는 그물은 한없이 넓어 세상을 덮고 있는데 그물의 마디마다 구슬이 달려 연결되어 있고 이 구슬에서 빛이나와 다른 구슬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와 인간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분리된 생명체 같지만 실제로는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모든 생명체를 유기체라고 합니다. 유기체는 각 부분 전체가 필연적인 관계를 가지는 조직체입니다. 즉 모든 생명체는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此有故彼有),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며(此生故彼生),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此無故彼無),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도 없어진다(此滅故彼滅)”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연기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렇듯 기후변화는 다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여러 종류의 물건을 사용하고 끊임없이 소비를 하며 살게 됩니다.

유행이 지나고, 혹은 물건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버리게 되고 그 길의 종착점은 결국 쓰레기입니다. 당장의 편함을 위해 미래가 희생당하고 더 이상 소각할 곳이 없어진 쓰레기들은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장의 큰 해결책보다 소중한 지구를 위해 하나씩 실천하는 생활을 하고 지구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루에 하나씩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



참 좋습니다

문광 / 대교파

출가出家하여 운문사에서 맞이하는 벌써 네 번째 가을이 되었습니다.

머리를 깎은 지 어언 4년, 어느덧 초심初心은 흐려지고 운문사의 하루 중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아침 일찍 일어나 먹는 커피 한 잔, “참 좋습니다.”

두 번째, 듣고 싶은 칭찬 몇 마디, “참 좋습니다.”

세 번째, 학인스님에게 주어지는 감사한 보시금, 감개무량할 만큼 “참 좋습니다.”

네 번째, 매 철마다 맡게 되는 소임, 이제 소임 없이는 허전할 만큼 “참 좋습니다.”

다섯 번째, 운문사에서 지켜야 하는 많은 규칙들, 그 안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을 만큼 “참 좋습니다.”

하지만 과연 “참 좋은 것이 진짜 좋은 것” 일까요?

오늘 하루 마시는 커피 한 잔에 에티오피아 어린이의 눈물이 들어 있다면,
과연 참 좋은 것일까요?

허공 속으로 사라지는 칭찬과 비난 몇 마디에 울고 웃는다면

과연 참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시주자들의 피땀이 서린 보시금의 무게가 단순한 기분 좋음으로 와 닿는다면
참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대중을 잊고 자신의 이름을 빛내기 위한 소임살이라면, 과연 참 좋은 것일까요?

화합을 위해 존재하는 계율이 어느덧 옳고 그름의잣대가 되어버렸다면,
참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출가와 많이 멀어져 있었습니다.

떠날 출出, 집 家. 출가出家는 집을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은 속세의 집, 가족, 인연들을 뜻하지만 제가 떠나야 할 진짜 집은 대상을 집착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승찬 대사의 「신심명」 첫 구절은 “지도무난至道無難이요, 유협간택唯嫌揅擇이라, 지극한 도는 어려울 것이 없네. 오직 간택함(취하고 버림)만을 꺼리면 되네.”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저의 하루는 늘 눈에 닿는 것, 귀에 들리는 소리, 코로 맡는 냄새, 혀에 닿는 맛, 피부에 닿는 촉감 그리고 스스로 만들어낸 관념들에 대한 좋고 싫음의 분별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부처님의 삶을 떠올려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소의를 입으시고, 결식하시며 나무 밑에서 주무시고 깨닫지 못한 이들을 위한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그 소박하고 거룩한 삶 앞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불만은 녹아버립니다.

참 좋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사실 다른 생명의 아픔 위에 만들어진 것이었음을, 저 위하여 스승의 삶을 통하여 배웁니다.

그리고 비로소 지금 이대로도 이미 참 좋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의 작은 오늘의 수행은 조금씩 조금씩 참 좋아하는 것으로 부터 멀어지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커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참 좋은 것들 없이도 지금 이대로가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제가 부처님의 길을 따라 부처님의 도량에서 이렇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모든 인연들께 감사의 절을 올립니다.

모든 괴로움을 여의는 그날까지, 행복한 수행자 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참 좋습니다. ☺





함께 익어가는 맛

- 운문사 제51회 총동문회를 보내면서

진하 / 사교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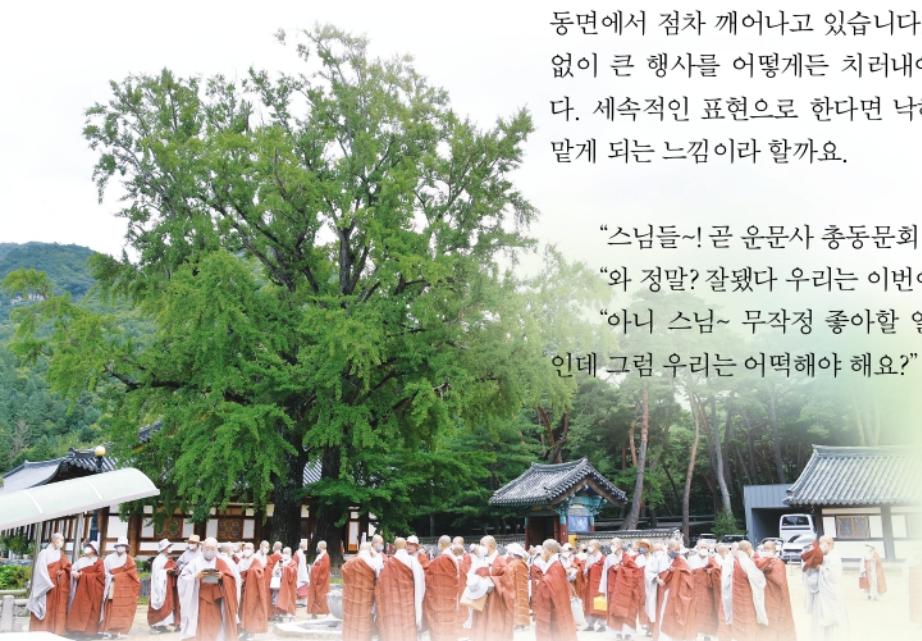
4년제 승가대학인 운문사에서 3학년 사교과는 또 다른 별칭으로 원주반이라 불립니다. 원주란, 승가에서 음식과 공양물을 관리하는 소임을 의미합니다. 운문사 3년차 학인이라면 사람 사는데 가장 중요한 일인 이 먹는 일에 대해 의무와 권리, 그리고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2020년, 코로나 19와 함께 입학하여 3년간 운문사 그 큰 도량과 공양간에 큰 대중을 한번 모셔본 일도 없던 저희 60기 학인들도 어엿한 3년차 원주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첫 발생 이후 3년, 거리두기가 점차 완화됨에 따라 운문사도 그간의 동면에서 점차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저희는 아무 경험 없이 큰 행사를 어떻게든 치러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렸습니다. 세속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낙하산 인사로 고위직을 갑자기 맡게 되는 느낌이라 할까요.

“스님들~! 곧 운문사 총동문회한다고 공지가 떴어요!”

“와 정말? 잘됐다 우리는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궁금하다~!”

“아니 스님~ 무작정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주반 인데 그럼 우리는 어떡해야 해요?”



제 51회 운문사 총동문회. 유구한 역사 속에서 이례적으로 3년 만에 가까스로 열리는 동문회이자 저희에게는 처음인 동문회. 처음이라 더 설레고 반가우면서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어찌해야 하면 좋을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복합적인 감정에 휩싸여 있던 우리에게 감사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동문스님들께 대접해드릴 맛난 음식과 차담을 졸업하신 35회 동문스님들이 직접 준비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막막하던 동문회를 도량에 있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손과 발을 맞추고 많은 분들께서 도와 주시는 가운데 무사히 치를 수 있었습니다.

동문회를 며칠 앞두고 학인스님들의 동문스님 맞이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입승반인 화엄반에서 큰 스케줄을 짜면 저희 반에서는 각자 맡은 위치에서 아랫반 스님들과 일을 진행했습니다. 후원에서 음식준비를 서포트하고, 다과를 준비하고 회의장 안에 꽃을 알맞게 들여놓고, 마이크 볼륨을 조절하고 안내 팻말을 붙이는 등 모든 일이 세심한 주의 속에서 이뤄졌습니다. 도량 내에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아직 낯설고 어려웠을텐데, 손윗반인 사집반 스님들의 살뜰한 챙김 속에서 치문반 스님들 까지도 손발을 재바르게 움직이며 적극적으로 일을 도왔습니다.

어른스님들께서도 손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정성껏 마당을 쓸고 나뭇가지 하나라도 더 주워내시는 일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밤이 늦어 깜깜해질 때까지 도량을 정돈하시느라 많이 고단하셨을 텐데도 오랜만에 오는 동문들을 떠올리면 힘이 나시는지 모든 일을 참으로 기꺼이 하셨습니다.

동문회를 하루 남겨두고, 태풍으로 인해 무척 많은 비와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하염없이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오랜만에 오시는 운문사에서 맑고 아름다운 모습을 충분히 더 담아가셔야 할 텐데 내일까지 비가 내려서 방문하신 스님들 옷이 젖으면 어찌나 하고 애가 됐습니다. 신기하게도 오후가 되자 빗방울이 잦아들더니 구름 사이로 푸른 하늘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문회날 아침, 전날의 비바람에 말갛게 씻긴 하늘과 기왓장이 어느 때 보다 푸르렀습니다. 저희는 일찍부터 마당에 떨어진 도토리와 낙옆들을 고루 쓸어낸 다음 테이블을 깔아 맛난 떡과 따스한 보이차를 차렸습니다. 온화하고 정감 있는 가야금 곡조를 세심하게 골라 도량마다 울려 퍼지게 틀어두었습니다. 회의가 열릴 선열당 내부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자리표도 만들어 붙였습니다.



한편 후원에서는 300명이 충분히 드실 수 있는 음식을 만들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도량 가득 맛있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저희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을 열심히 들고 나르고 담아내는 일을 도왔습니다. 접시마다 하나같이 스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찬들로 수북했습니다. 구수한 시래기찌개와 장떡, 이번 가을에 막 나온 송이로 끓인 향긋한 송이국, 정갈한 물김치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칠맛의 묵은지 김치찜 등 사찰에서 맛볼 수 있는 최고급 인기메뉴였습니다. 원주반인 저희들은 누구보다 더 그 음식들을 눈에 담고 어떻게 만드는지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선배 스님들께서 익혀오신 노하우를 이 기회에 보고 익힐 수 있으니 피곤함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이윽고 하나둘씩 도착해 오시는 동문 스님들을 뵈오며 반가움과 기쁜 마음에 저희는 진심으로 허리 숙여 인사드렸습니다. 아무리 오랜만에 만나더라도 운문사 동문은 어제까지 함께 지낸 사람들 같다는 어른 스님의 말씀처럼, 처음으로 동문 스님들을 뵈오며 그분들의 눈빛에서 걸어가시는 뒷모습에서 이제 우리가 막 물들어 가는 빛깔, 우리가 닳고 싶은 그 빛깔을 보았습니다.

동문 회의가 열리기 전, 회주스님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 동문스님들께서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마음의 고향을 찾아오신 운문의 스님들이 부처님 법을 가르쳐 주시고 길러 주신 마음의 부모를 찾아오신 모습 같아 가슴이 벅찼습니다. 지금 운문사를 다니는 저희들도 회주스님을 뵈울 때면 존경심과 환희심이 마음 가득 차오르는데 더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오신 동문스님들은 얼마나 더 각별하고 깊은 마음으로 회주스님을 찾아왔을까요.

동문 회의가 시작되자, 200석이 넘는 선열당 내부의 좌석이 가득 찼습니다. 큰 대중이 모였지만 회의장의 공기는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모두가 회의 진행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51회 총동문회 회장단은 지금으로부터 34년 전 졸업하신 운문 26회 스님들께서 이어받으셨습니다. 이어지는 동문회 안건 발의 시



간에 적극적인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앞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스님들에게 더 많은 장학금 수여기회를 제공하시는 안건이 발의되었고 많은 스님들께서 찬성하시는 등 활발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분히 조용하고 진지하면서도 때로는 유머를 곁들여 함께 웃으며 즐겁게 회의하시는 어른 스님들의 모습이 참으로 인상 깊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서는 선열당 지하에서 저녁 공양을 대접하는 것으로 모든 일정도 마무리되었습니다. 떠나가는 스님들께 화엄반 스님들은 정성스레 포장한 선물을 하나씩 나눠드렸습니다. 저희 도반스님들도 끝까지 문밖에 나가서 떡을 나눠 드리며 배웅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른 스님들이 떠나신 자리에 우리도 저녁 공양을 하기 위해 느즈막히 모여 앉았습니다. 눈만 봐도 뭘 하려는지 알 수 있고, 일이 하나 주어지면 단숨에 달려들어 일을 해치우는 무적의 용사들인 저희들. 역전의 용사들을 마주하는 듯, 고단해 보이는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서로 빛났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과 미소 속에서 한바탕 웃으며, ‘그래 우리는 지금 같은 색이구나. 우리도 그분들처럼 익어가고 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운문의 도량 속에서 어우러지며 부처님 법을 배우고 스님네의 검은 물을 들여간다는 것은 마치 늦가을 다 같이 모여 담근 김장 김치가 함께 부대끼며 독 안에서 익어가듯, 참으로 아름답고 멋있는 일입니다. 그 맛은 같이 살아본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깊은 맛, 감칠맛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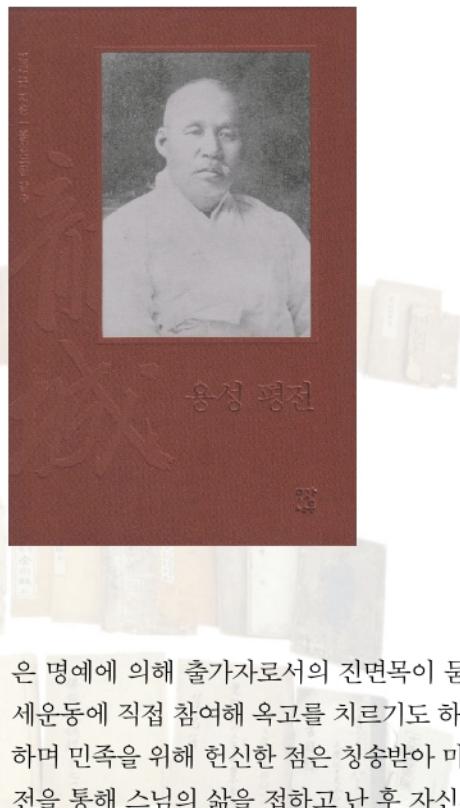
개인주의가 대세라는 오늘날, 코로나 19로 개개인들 간 거리는 더욱 극명해졌습니다. 함께 모여 살아가며 익히고 배우는 승가 공동체의 맛을 누가 알까요, 우리끼리 눈빛으로만 전할 수 있는 그 맛. 와서 살아본 사람들만 알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익어갑니다. ☺



『용성 평전』을 읽고

정현 / 운문사한문불전대학원



학인 시절 들렀던 삼장원 도서관에서 '백용성 대종사 총서' 모음집을 보았다. 어렴풋이 3·1 독립운동에 참여하셨던 스님 정도로만 알고 있을 때였다. '도대체 얼마나 훌륭한 업적을 남기셨기에 20권의 방대한 총서가 편찬된 것일까?' 품었던 그 의문은 『용성 평전』을 읽으면 씻은 듯 사라졌다. 마침 운문지 '이 한 권의 책' 부문에 글을 쓸 좋은 기회가 왔고, 주저 없이 『용성 평전』을 선택했다.

출가자로서 가장 우선되는 가치는 무엇일까? 당연히 法(진리)일 것이다. 부처님 재세在世 시부터 지금까지 우리 수행자에게 요구되는 의무는 법과 관련해 그것을 이해하고 지켜야 하며 전달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외의 것들에 힘쓰다가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3·1 독립운동의 민족대표 33인의 불교계 인사 정도로 알려진 '용성진종 조사'가 그렇다.

세상사에 관여해 의로운 일을 하고 그로 인해 얻

은 명예에 의해 출가자로서의 진면목이 묻혔다고나 해야 할까? 물론 호국의 차원에서 3·1독립만 세운동에 직접 참여해 옥고를 치르기도 하고 항일전선에서 활동하는 이들에게 자금조달 등을 지원하며 민족을 위해 헌신한 점은 칭송받아 마땅한 일이지 결코 평가절하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본 평전을 통해 스님의 삶을 접하고 난 후 자신의 시대 인식을 '불법 쇠락시대'로 여기면서도 호법護法에 필사적이었던 구도자적 면모에 대해 힘주어 이야기하고 싶다.

용성 스님이 살던 시대인 1900년 전후의 한반도는 열강들의 각축전이 펼쳐지던 곳이었다. 약육 강식과 적자생존이 판치던 시대에 조선은 힘이 없었고 결국은 일제 치하에 놓이게 된다. 불교계의 사정도 다를 바 없었다. 외부적인 충격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지만 실상 조선말 불교계의 현실은 일제의 외압만을 탓할 게 못 되었다. 조선조의 억불을 거치면서 기복신앙으로 간신히 명맥을 이어왔고 친일 대처승들이 총독부의 외호에 힘입어 불교계를 장악하게 된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용성 스님은 불문에 귀의해 깨달음을 추구하며 중생의 교화를 모색했

다. 우선 스님의 수행 이력부터 살펴보자면, 출가 이후 선지식을 찾아다니며 그 지도하에 주력 수행을 하고 이어 화두 참구를 통해 견성오도 했다. 각 경지마다 주옥같은 계승을 남겼으며 다른 선사들과의 법거량도 마다하지 않았다. 13년의 보임 기간을 가지고는 세상에 다시 나서 선풍의 중흥을 위해 힘썼다.

하지만 스님의 정체성을 선사로 한정 짓기에는 활동들이 너무나도 다채롭고 풍부하다. 수행뿐 아니라 저술과 번역, 포교, 후학양성, 사찰운영 등 마치 각 분야에서 족적을 남긴 몇 명의 고승들을 한 인물로 집약해 놓은 것만 같았다. 특히 삼장역회를 조직, 경전을 한글화하는 일에도 앞장서서 주변의 비난과 외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강경』, 『능엄경』, 『원각경』, 『대승기신론』 등 대승의 주요 경론들을 번역했다. 특히 그 방대한 『화엄경』을 한글 번역해낸 것은 한국 불교사를 통틀어 기념비적인 일이라 평가할 만하다. 지혜의 한글화였고, 진리의 대중화였다.

올곧으면서도 유연했던 용성 스님은 해동율맥의 계승자로서 계율을 중시했다. 그렇기에 시류를 핑계 삼아 불교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대처승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총독부에 두 차례에 걸쳐 건백서를 제출하기도 했는데 비록 그 뜻이 관철되진 못했으나 대처승들을 사자충으로 비유하며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한편 사찰의 자생력과 독립운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광을 경영하기도 하고 이후엔 사찰에서 과수원과 농장을 운영하며 선농불교운동을 전개했는데 이는 스님의 고결함과 성실성, 시대를 앞서 내다보는 현실감각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다.

용성 스님이 남긴 발자취들은 이후 한국 불교 및 현 조계종단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스님이 중시했던 역경, 포교, 인재양성은 오늘날에도 종단의 3대 주요 역점사업으로 삼고 있다. 문하에서는 조계종단의 종정스님 세 분(동산, 고암, 성철)이 배출되었고, 용성 스님이 주도한 참선만일결사는 훗날 성철·자운·청담 스님 등이 주역인 봉암사 결사로 계승되었다. 봉암사 결사는 근현대 불교 정화운동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꼽히며, 마지막으로 남긴 유훈10사목이라는 씨앗은 특히 동현-도문-법륜 스님의 계보로 이어지며 오늘날에는 활짝 꽂피었다고 할 수 있다.

용성 평전을 통해 일제 치하의 암울한 시대를 살며 숱한 시련과 난관에도 파사현정을 추구한 근세 불교계의 고승을 활자로나마 친견할 수 있었다. 실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역사의 아픔에 가슴이 저렸고, 불법수호를 위한 한 수행자의 치열했던 생애 저절로 머리 조아려졌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법의 수호 및 전파와 관련해 용성 스님의 삶과 사상들은 앞으로 더 조명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진정한 시대의 스승이었던 용성진종 조사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표하며, 수행자로서 나아가야 할 나의 길을 다시금 점검해 본다. ☺



용성 스님이 저술, 번역한 원고와 책



순례자 위의에 대한 단상斷想

산자야 스승 밑에서 청정한 수행을 하고 있었던 사리불 존자께서 처음 부처님께 귀의하게 된 것은 마승 비구의 기품 있고 위의가 단정한 수행자다운 모습을 보고 나서였다. 수행자다운 위의는 비단 보는 이들에게 신심과 환희심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먼저 수행자 자신의 마음을 평안하고 고요하게 만들어 준다. 위의 있는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부처님께 귀의해 아라한과를 증득한 성인들처럼 위의를 갖춘 우리들의 순례 모습이 이 세상에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끌어 주는 등불과 같은 인연이 되기를 발원해 본다.



어느 날 라자가하의 거리를 거닐던 사리불 존자는 탁발을 하는 한 사문의 엄숙한 용모와 고요하고도 위엄 있는 거동을 보고 크게 감명을 받았다. 사리불은 이 고상한 사문이 누구의 제자이며 어떤 가르침을 받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가 탁발을 마칠 때까지 계속 따라갔다.

“벗이여, 당신의 모습은 우아하고, 눈빛은 맑게 빛납니다. 누가 당신을 출가하도록 설득했습니까? 당신의 스승은 누구시며, 어떤 법(가르침)을 따르고 계십니까?”

그 사문은 부처님 최초 다섯 제자의 한 분인 마승馬勝(Assaji) 비구이다.

그 인연으로 절친한 도반인 목련 존자와 그들을 따르는 250명의 수행자들도 부처님을 찾아와 모두 함께 제자가 되었다.

부처님의 상수 제자인 사리불 존자께서 처음에 무엇을 보았길래, 목련 존자와 더불어 250명의 수행자들까지 부처님께 귀의하게 되었을까?

운문사승가대학에서는 지난 10월 초, 코로나로 최근 2년간 취소되었던 졸업여행으로 인도 성지 순례를 다녀왔다. 경전으로만 접해오던 2600여 년 전의 부처님 성지를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며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견문을 넓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함이었다. 또한 성지 순례를 통해 4년 동안의 강원 생활을 마무리하고, 신심을 견고히 해서 완전한 승가의 일원으로 평생의 서원을 세우기 위해서였다.

부처님께서 최초로 설법하셨던 사르나트를 첫 순례지로 삼은 59회 졸업생들은 대탑을 마주하며 만의를 수하고 기도를 했다. 코로나 시국에 강행했던 성지 순례였기에 20여 명의 반 스님들은 드디어 부처님 성지에 도착했다는 안도감과 환희심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같이 기도할 수 있음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신심으로 한모습, 한목소리로 예경하는 모습은 다른 순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한국 수행자의 위력이었을까? 견학나온 100여명 인도 학생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은 사리불 존자께서 마승 비구에게 느꼈던 환희심에 벼금가리라. 이러한 위의로 장엄한 순례가 그들이 한국불교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처님의 탄생지인 인도에서 힌두교도가 인구의 90%에 달한다는 사실과, 부처님 10대 성지가 복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 벽돌 기단만이 순례객을 맞이하는 풍경이 바뀌지 않을까.

특히, 부처님 성도지인 마하보디 대탑이 있는 보드가야의 일을 상기해보면,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성도하신 곳인 만큼 세계 각국에서 온 수행자들이 경전 및 진언 독송, 오체투지, 좌선, 우요 삼잡, 108배 기도 등으로 수행 열기가 뜨거웠다. 운문사 화엄대중도 불상에 가사 공양을 올리고 만의를 수한 채 다라니 독송을 하며 우요삼잡했다.

이러한 광경을 처음 접했을 때 무질서하고 어수선한 각자의 수행방식이 다른 순례객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듯 했다. 그러나 그곳에서 3일간 머무르며 기도, 예경, 독송을 하니, 처음 염려했던 마음은 차츰 각자 부처님께 예경하는 소리로 한 물결을 이루어 내어 화장장엄세계를 연출해 내었다. 화엄경에서 글자로만 배웠던 사사무애의 세계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이 모두는 바로 지극한 신심과 모인 대중 각자의 색깔을 한 목소리로 만들어 내는 화합의 울림이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또, 태국 스님들의 탁발행렬과 미얀마 비구니 스님들이 가사를 수한 채 안행하는 모습, 태국과 미얀마에서 온 불자님들이 법복을 갖춰 입고 순례하는 모습에서도 환희심이 났다.

요즘, 우리의 성지 순례 모습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대중 생활을 하며 위의를 갖춰야 하는 우리나라에서와는 다르게 모든 규제에서 해방된 듯 편안한 적삼 차림으로 관광 온 여행객과 다름없이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수행자의 본분을 망각한 스님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우리 불자님들도 등산복 차림으로 성지 순례를 하거나 성지의 의미를 새기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유하기보다, 관광하듯 소란스럽게 이야기하는 등의 태도는 순례의 의미를 퇴색하게 한다.

산자야 스승 밑에서 청정한 수행을 하고 있었던 사리불 존자께서 처음 부처님께 귀의하게 된 것은 마승 비구의 기품 있고 위의가 단정한 수행자다운 모습을 보고 나서였다. 수행자다운 위의는 비단 보는 이들에게 신심과 환희심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먼저 수행자 자신의 마음을 평안하고 고요하게 만들어 준다. 실제로 우리도 적삼 차림으로 자유롭게 다닐 때 보다, 여법하게 가사 장삼을 수한 채 안행을 하고 기도할 때 몸과 마음이 안정됨을 느꼈다.

금강경 제1분 법회인유분法會因由分에서 부처님께서는 ‘공양하실 때가 되어 가사를 입으시고 발우를 드시고 사위성에 들어가시어 결식하시고 돌아오시어 공양하시고 발을 씻으신 뒤 자리를 펴고 앉으시는’ 하루 일과를 통해서 우리 수행자들이 평소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말로 설명하기에 앞서 몸소 보여주고 계신다. 이런 위의 있는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부처님께 귀의해 아라한과를 중득한 성인들처럼 위의를 갖춘 우리들의 순례 모습이 불교가 희미해져 가는 인도에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끌어 주는 등불과 같은 인연이 되기를 발원해 본다. ☺

운문소식



▲ 오백전 개금불사 및 점인식



▲ 제51회 총동문회



▲ 치문반 첫 논강



▲ INEB 컨퍼런스



▲ 역사문화관 기공식

- 9월 14일 가을철 개학공사 및 죽비 전달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9월 18일 비로전 개금불사, 오백전 개금불사 및 개채불사 점안식이 있었습니다. 통도사 율원장 덕문스님께서 점안식 중명을 해 주셨습니다. 제44회 오백나한 100일 기도 입재가 오백전에서 있었습니다.
- 9월 20일 제51회 운문사승가대학 총동문회가 있었습니다. 신임 동문회장으로 제 26회 졸업생 동언 스님을 추대했습니다. 모교발전을 위한 토론 및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 9월 22일 저녁예불 후 가을철 첫 자자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9월 23일 차례법문이 저녁예불 후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법사스님: 화엄반 문광, 효민 스님, 사교반 원녕 스님, 사집반 혜진 스님, 치문반 진성 스님)
- 9월 24일 가을철 법공양이 있었습니다. 치문반 첫 논강이 저녁예불 후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9월 25일 ~ 27일 화엄반 스님들의 인도 성지순례 졸업여행 무장무애를 발원하는 신중기도가 비로전에서 3일간 있었습니다.
- 9월 28일 외부특강이 선열당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특강은 한국갈등조정 연구소장이자 화생위원인 조영일 소장님의 '찾아가는 승가교육 화생 특강'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 9월 30일 대한불교 조계종 2급 승가고시에 일진 율주 스님께서 갈마위원으로 참석하셨습니다.
- 10월 1일 ~ 17일 화엄반 스님들이 14박 15일간 지해 사리암 감원스님 인솔하에 인도 성지순례 졸업여행을 다녀왔습니다.
- 10월 4일 조사전에서 구중일 다례재가 있었습니다.
- 10월 5일 조계종 총무원장 취임 법회에 운산 주지스님 인솔하에 대중스님들이 다녀왔습니다.
- 10월 6일 ~12일 6박 7일간의 가을 휴강이 있었습니다.
- 10월 12일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상주교수 연찬회에 교수 스님들이 다녀왔습니다.
- 10월 15일 동화사에서 승시 범고시연이 있었습니다. 고봉 교무스님 인솔하에 총 6명의 스님이 참여했습니다.
- 10월 26일 INEB 컨퍼런스 '21세기 비구니 연대 워크샵'이 선열당에서 있었습니다. 정토회 법륜 스님 및 태국의 저명한 사회운동가 술락 시 바락사 박사 등 1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컨퍼런스 패널로 동호 장주 스님이 참여했습니다.
- 10월 30일 역사문화관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 11월 1일 겨울철 김장 울력을 하였습니다.
- 11월 4일 가을철 포살이 영덕 학감스님을 단주로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11월 5일 ~6일 은행나무 개방하였습니다.
- 11월 7일 가을철 종강과 마지막 자자가 있습니다.

도와주신 분

- 위봉사 주지 송욱스님 • 영각사 홍진스님 • 정해옥 • 조서영
- 조정일(대인경) • 박영훈 • 하옥희 • 김정대 • 김성옥
- 장익수 • 김옥진 • 흥지혜 • 한기듬 • 김길웅

※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雲門』誌 발간에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의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체국 701839-01-000335, 예금주 : 운문편집실)

* 주소가 변경된 분은 편집실로 연락 주십시오. ☎ (054)370-7139



옥등잔 玉燈燭

조선시대, 옥석, 2점, ① 높이 3.3cm 지름 9.8cm ② 높이 8.8cm 지름 17cm

계성변시광장설 溪聲便是廣長說 시냇물 소리가 곧 부처님 말씀이요
 산색기비청정신 山色豈非清淨身 산빛깔 어찌 부처님 모습이 아니리
 야래팔만사천개 夜來八萬四千偈 밤새 주고 받은 팔만사천 개송
 타일여하거사인 他日如何舉似人 다른 날 누구에게 전할 수 있을까

- 소동파 -

* 「자유기고」에서는 전국 학인스님들의 글을 받습니다.

* 「호거산 운문사」에서는 운문지 독자 후기, 운문지에 관한 에피소드 등 독자의 소리를 기다립니다.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운문사에서 사리암 기도영험록을 제작합니다. 사리암 나반 존자님 기도를 통해 가피를 얻은 불자님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054)372-8800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교육시스템,
다양한 학인복지 지원의 명실공히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비구니 교육수행도량!
운문사승가대학에서는 2023학년도 신·편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운문사승가대학 신·편입생 모집 공고



운문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 · 보현율원 신입생 모집 공고



운문사승가대학 · 대학원 공통 특전사항

| | |
|------------------------|--|
| 자 격 | 2023년 봄 수계자 및 비구니계 수지한 스님(편입가능) |
| 모 집 인 원 | 사미니과 ○○명 |
| 제 출 서 류 | 1.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2. 은사스님 추천서 3. 본인 사미니증(승려증) 사본 및 은사스님 승려증 사본 4. 증명사진(장삼 · 만의 착용) 2매(3×4) |
| 모 집 기 간 |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 27일까지 (시전에 우편 혹은 전화) |
| 전 형 방 법 | 추후공지(종무소로 문의) |

운문사승가대학 회주 법계 명성 · 율주 일진 · 학장 진광 · 주지 운산

| | |
|------------------------|---|
| 모 집 대 상 | 비구니계를 수지한 스님 |
| 모 집 인 원 | 2023년도 봄 구족계 수계예정자 포함, 통학도 가능함 ○○명 |
| 제 출 서 류 | 1. 입학원서(본 율원 · 대학원 소정양식) 2. 수행이력서 3. 승려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4. 기본교육기관 졸업(예정)증명서 5.증명사진 2매(3×4) |
| 모 집 기 간 |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 27일까지 |
| 전 형 방 법 | 추후공지(종무소로 문의) |

운문사한문불전승가대학원장 명성 · 보현율원 율주 일진 · 주지 운산

| |
|--|
| 해외교류 대학 · 대학원 입학 특전 사항 |
| • 일본 하나조노 대학 · 대학원 |
| • 북경 청화대학 인문계열 |
| • 태국 국립 마하출라롱꼰대학 |
| 재학 중 입학금면제 · 병원비 지원 · 전학년 교재 및 도서 지원 · 졸업여행비지원 마하보디교육원 훈스피스교육 |

※ 신·편입생 모집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054-372-8800, 370-7100)와
운문사 홈페이지(www.unmunsa.or.kr)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雲門寺僧伽大學

38368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 雲門寺 / 편집부 (054) 370-7139 / 종무소 (054) 370-7100 / <http://www.unmunsa.or.kr>

[운문·계간] 기울호 · 통권 제161호 · 2022년 11월 11일 발행 · 등록 1995년 3월 29일 · 등록번호 경북 바-01008 / 발행처 · 운문사승가대학 / 발행인 · 명성(전임호)
고문 · 원법 / 편집 · 운문사승가대학 편집부 / 편집장 · 도현 / 편집위원 · 대겸 · 도술, 덕유 / 사진 · 편집부 / 표지사진 · 도현(운문의 역사) / 삽화 · 현밀, 진하, 도선
편집디자인 · Design MARU(디자인 마루) (053)426-3395